



RALPH LAUREN

Collection

THE SHEARLING COLLECTION RALPHLAUREN.COM COLLECTION

Style

조선일보

SEPTEMBER 2015
vol.130



TOD'S
MADE IN ITALY

Cartier

CLÉ DE CARTIER



BURBERRY





36



표지에 등장한 이미지는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토즈의 2015 F/W 여성 광고 캠페인이다. 사토리얼 콘셉트의 스포티함이라는 두 가지 주제를 통해 메이드 인 이탈리아(Made in Italy) 감성을 표현했는데, 표지에 등장한 케이프 백(Cape Bag)은 일안정의 형태와 기능에서 영감을 받은 현대적인 디자인이다. 문의 02-3438-6008



24



10

- 14 **ARTISTS AND PETS** 예로부터 많은 예술가가 자신의 반려동물에게서 영감을 얻어 작품을 만들었다. 현대에는 미술가뿐 아니라 건축가, 디자이너도 반려동물을 주인공으로 한 재미 발랄한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사랑스러운 동물에게서 영감을 얻는 국내외 아티스트들의 작품 세계.
- 16 **HIGH MOON** 반짝이는 별빛 아래 드러나는 달의 아름다움과 시계의 가치를 높여주는 특별한 기능까지 갖춘 문페이즈 워치 컬렉션.
- 18 **VINTAGE ROMANCE** 사랑장 깊은 곳에서 발견한 듯 반짝이는 매력적인 주얼리 컬렉션.
- 20 **ALL THAT FLATS** 요즘 가장 핫하다고 자부할 수 있는 플랫폼 슈즈가 트렌드의 정상에 섰다.
- 22 **STYLE PERFECTION** 출근 전, 거울에 비친 모습을 보며 뭔가 좀 부족하다고 느꼈던 이들에게, 부족한 2%를 채워줄 액세서리 셀렉트 슝 일모(LMO)를 추천한다.
- 24 **DANDY GIRL** 사철의 새로운 워치, 보이·프렌드(Boy·friend)와 함께한 여배우 고준희의 매력적인 시간.
- 30 **URBAN PERFORMANCE** 기능성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스타일 리치함을 갖출 수 있는 선택, 랑방스포츠 2015 F/W 컬렉션.
- 32 **TRADITION AND INNOVATION** 전통적인 워치메이킹 기술에 대한 존경심에서 기인한 지속적 혁신을 통해 끊임없이 정화상을 추구하는 블랑팡의 헤리티지.
- 34 **THE PRECIOUS MOMENT** 1백 년이 넘는 필가의 역사를 지켜온 몽블랑이 전략적인 행보로 눈길을 끄는 제롬 랑베르 CEO와 마크 뉴슨의 협업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었다.
- 36 **BOND WITH SPORTS** 태그호이어는 F1, 오토, 축구, 스키, 마라톤, 서핑, 농구, 골프, 악스트림 스포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포츠 종목, 그리고 선수들과 인연을 맺으며 스포츠 워치 명가로서의 위치를 다져나가고 있다.
- 38 **DREAM MAKER** 밀라노에서 완성하는 영롱한 컬러로 가득한 파인 주얼리 하우스 포멜라토(Pomellato)의 환상적인 아름다움.
- 39 **THE ITALIAN TOUCH** 옷 잘 입는 이탈리아 남성을 비롯해 세계 곳곳에 '도버(Dover)' 재킷 열풍을 일으킨 블리올리.
- 40 **PRESENT FOR SWEET** 어떤 맛이 담겨 있을까 기대하게 되는 벨기에 수제 초콜릿 명가 고디바(GODIVA). 장식과 품격을 전하는 고디바 초콜릿 기프트로 추석을 맞이하는 것은 어떨까.
- 41 **TEA STORY** 향긋한 티와 달콤한 디저트면 몸에 쌓여 있던 스트레스와 긴장을 풀어주기 충분하다.
- 42 **SLEEP INNOVATIONS** 1세기가 넘는 찬란한 역사 속에 잠의 혁신을 거듭해온 시몬스. 꿀잠을 선사한다는 8성급 호텔 침대와 대명사이기도 한 이 브랜드가 추구하는 '수면 공학'에 주목해보자.
- 44 **SCENT OF A MAN** 청량한 키데일 향전을 마신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켜줄 아쿠아 향수의 시원한 상상.
- 45 **EDITOR'S PICK** 싱그럽고 달콤한 과일 향부터 매혹적인 여인을 담은 플로럴 향까지. <스타일 조선일보> 기자들이 선택한 9월의 향기는 추억을 떠올리게 하고, 마음까지 치유한다.



GUCCI

Style 조선일보

Issue.130 September 2015



stylechosun.com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는 풍성한 선물 이벤트를, 실질적인 정보의 리서치 브랜드 갤러리,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월호를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일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드립니다. 허서리 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해주세요. stylechosun.com

대표 | 방정오 cbang@chosun.com 이사 | 이석기 stonelee@chosun.com
 편집장 | 김유미 ymkim@chosun.com 피처 디렉터 | 고성연 amazingk@chosun.com
 패션·뷰티 디렉터 | 배미진 mijin@chosun.com 에디터 | 권유진 yjkwon@chosun.com
 에디터 | 김지혜 jihye@chosun.com 아트 디렉터 | 이은옥 okida0820@naver.com 교열 | 이정현
 광고·마케팅 | 박영하 yhpark@chosun.com 김준석 adjoons@chosun.com
 조동일 ci@chosun.com 재무 | 이민희 mhlee@chosun.com 분해·제판 | 새빛 그래픽스
 인쇄 | 타라티피에스 발행처 (주)스타일조선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413 414 하이패러온 비즈니스센터 110호
 기사 문의 02-793-5330 광고 문의 02-793-5529

매월 첫째 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여의도, 한남동, 동부이촌동, 평창동, 성북동, 경기도 성남 분당구, 부산 해운대구, 수원, 동래구, 남구, 연제구, 대구 수성구의 조선일보 구독자에게 배달됩니다.

※ 3·4·9·10월은 첫째 주 수요일에 각주로 두 번 발행합니다.
 ※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발행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프랑크 코르크트르

Jewel OF PASSION

패션 코드를 담은 디자인으로, 하나만 착용해도 존재감이 확실한 커스텀 주얼리.

(위부터 아래로) 손목에 걸리는 원단의 밴드와 벨트 디자인의 원형링, 기하학적인 금속 모티브에 가죽, 크리스탈 장식의 포인팅트 중 네크리스 1백40만 원대, 벨트 90만 원대, 모두 토즈, 호루라기 체인 네크리스 2백30만 원대, 사슬, 깊은 청록색이 강조된 원형 원석 반지와 네크리스 각 65만 원, 모두 마린 마르카젤과, 강렬한 블랙 원형 원석의 벨트를 70만 원대, 안반 매니스 by 루이, 강렬 가의 표지판을 모티브로 한 블랙 카프스 링크 2백10만 원대, 사슬, 에디터 베이진, 권유진

Fashion WOMEN IN RED

강렬하고 색다른 이미지의 대명사 레드 컬러가 돌아왔다. 세계적인 컬러 전문 연구소 Pantone에서도 2015 F/W 트렌드 컬러로 탁한 붉은색인 '미르살라'를 꼽을 정도로 레드의 인기가 대단하다. 특히 이번 시즌 가장 눈에 띄게 레드를 사용한 컬렉션은 단연 구찌다. 비대칭 리본 장식을 더한 원피스부터 자그재그 패턴의 퍼 코트, 미르살라 컬러를 적극 활용한 더블 코트까지 다채로운 레드의 향연을 선보였다. 여기에 마르니, 디올, 돌체앤가바나, 펜디까지 레드와 사랑에 빠진 디자이너들의 의상이 런웨이에 줄줄이 이어졌다. 사실 레드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소화할 수 있는 컬러는 아니다. 약간 강렬하고 눈에 띄어 자칫 잘못 입으면 과해 보일 수 있기 때문. 그렇다면 스타일리스트에게 레드 패션을 소화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첫째로, 블랙 컬러와의 매치다. 블랙은 레드와 가장 잘 어울리는 컬러로 레드를 보다 차분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만들어준다. 블랙 팬츠와 레드 컬러의 실크 블라우스를 스타일링한 에르메스의 컬렉션이 좋은 예가 되겠다. 두 번째는 액세서리와도 공할이다. 강렬하면서도 유혹적인 레드 원피스를 공방적으로 선보인 마르니와 페라가모의 컬렉션을 살펴보면 답을 얻을 수 있다. 모두 벨트를 착용해 하반신을 살리는 동시에 온통 레드 일색인 드레스의 분위기를 중화했다. 이때 액세서리는 브라운, 블랙, 네이비 블루 톤 다용된 컬러를 선택해야 한다. '화려하다', '야하다', '과하다' 등 레드에 관한 고정관념으로 심시리 도전하지 못했다면 이틀이던 스포카적인 스타일링에서 벗어나 패셔너블한 레드 패션을 즐겨볼 때다. 에디터 김지혜



에르메스

돌체앤가바나

마르니

페라가모

구찌

INSIGHT

편집부가 엄선한,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달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Drink
참산함과 희소성을 내세워 다양하게 오감을 사로잡다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는 주류업계가 피하는 변신의 노력이 눈물겹도록 다채롭다. 새로운 차원의 사비나 상품으로 각자의 영역에서 '참산함', '희소성' 같은 단어를 붙일 만한 특색을 내세워 소비자 의 마음을 사로잡기 여념이 없다. 이트 컬래버레이션은 그런 시도를 보여주는 좋은 예다. 싱글 몰트 위스키 브랜드 맥클린은 감청호 작가와 관계를 주제로 한 이트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백청나무, 적동 도금, 네오디움 자석 등 다양한 소재를 활용한 'Twelve Inter-faces', 그리고 영국 소설가 존 윈덤의 작품에 등장하는 식물 과수 이름을 차용한 'Black Tri-fid'다. 또 다른 싱글 몰트 위스키 브랜드 발베네는 전세계 1백28명만 생산한 발베네 50년으로 최상의 품질과 희소성을 부각했다. 서울 잠룡동 신라 호텔에서 한 달간 일반에 공개하는 이 특별한 위스키는 캐스프 4567과 캐스프 4570인데, 둘 다 1963년 같은 날 같은 증류소에서 동일한 종류의 오크통에 담겨 50년간 숙성된 원액으로 만들었다고. 판매가는 발베네 50년 2병 한 세트에 1억원, 조니 워커에서는 전설적인 마스터 블렌더를 앞세워 고객의 취향에 따른 맞춤형 위스키 제작 사비나인 '시그니처 블렌드 (Signature Blend)'를 선보였다. 나만의 리미티드 에디션을 만들어주는 일종의 비스포크 사비나가 프리미엄 위스키의 세계에도 도입된 셈이다. '조니워커 블루 레이블'의 창시자인 짐 배버리지가 서울 조니워커 하우스에서 고객과 마주 앉아 취향을 꼼꼼히 분석하고 시음해가면서 '1인용 위스키'를 만들어주는 서비스를 손수 제공하기도 했다. 돌페라농은 섬세한 피노 누아 품종의 매력을 한껏 살린 '로제 빈티지 2004'를 내놓았다. 피노 누아를 중심으로 한 전례 없는 배합을 시도했지만 와인 전체가 압도당하지 않도록 균형을 살리는 까다로운 작업의 소신이다. 또 여성을 위한 스킨케어 라인에 차별성을 내세운 '에콜라 바이 임페리얼(Eclat by Imperial)'은 임페리얼 브랜드의 파격적인 변신이라는 점에서 흥미롭다. '여성'의 과일이라 불리는 석류 향을 기미한 위스키로 일교율 도수를 31도로 낮췄는데, 향수병 같은 분위기의 파격성도 돋보인다. 에디터 고성연



맥클린

돌페라농

발베네



Beauty
COLOR ME!

요즘 SNS에 올라오는 여자들의 포스팅을 유심히 살펴보면 카피본을 우아하게 짙은 손에도, 누구나 탐낼 만한 잇백을 손에도 예쁜 네일 아트가 함께한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다. 더 흥미로운 점은 이런 그네들이 여름 내내 유행한 평한 네일 컬러나 블루, 화이트 컬러의 네일 에. 랩을 자우고 아. 새 포근하고 부드러운 니트에 어울리는 깊고 풍부한 가을 색채의 네일 컬러로 채워진다는 것. 당장도 트렌드에 뒤처질 수 없지 않은가? 올가을 어떤 컬러의 네일을 바를지 고민하고 있다면, 여기 뷰티 회사들의 하우스에서 신제품으로 내놓은 네일 컬러에 주목해보도록.

(가운데 윗부터 시계 방향으로) 매 시즌 다양한 네일 컬렉션을 선보이는 맥은 이번 시즌 크리미한 컬러를 메인으로 출시했는데 그중 맥 스투디오 네일 라미 비포 연은 오묘하고 은은한 잔잔한 핑을 함유한 카키 컬러의 네일 에. 랩. 그레이 톤이 섞인 크리미한 카키 컬러로 부담스럽지 않고 세련된 룩을 연출할 수 있다.(10ml 1만8천원). **인실로랑 라 리오 구뎀 270호**는 발랄한 핑카인 코랄로이 섞인 톤이 돋보이는 언디 핑크 컬러로 내추럴하면서 여성스럽다. 알고 가벼운 핑을 코팅 후고로 빠르게 건조되고 스톤의 수분을 유지해준다.(10ml 9천3천원). **에스티 로더 퓨어 컬러 네일 랩 비벳 컬렉션 어쇼 앤드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출시한 핑 컬러로, 무려 백 핑 느낌으로 마무리한다는 점이 독특하다. 톱 코트로 광택을 내지 않고 매트한 느낌 그대로 발라야 예쁜 컬러이니 참고하도록.(9ml 2만6천원). 가을 숲 속의 빛과 어울, 자연의 컬러에서 영감을 받은 **시셀 르 베르니 679호 베르니 올스카**는 블루가 끼인 딥 그린 컬러로 초목의 잎사귀에 반사되는 햇빛을 연상케 한다. 차분하면서도 강렬하고 어두운 컬러로 슬로로 갈라져서 발랐을 때 더욱 세련되고 예쁘다.(13ml 9천3천원). **버버리 네일 컬러시 아보르 105호 울프** 버버리 트랜치코트를 연상케 하는 울프 베이지 컬러. 영국의 남부와 동에서 영감을 얻어 만들었다. 향산화 프로피티 B, 미로 추출물 등을 함유해 막힌 손톱을 강화하고 수분 공급을 도와 손톱이 갈라지는 것을 방지한다.(8ml 9천원). **디올 베르니 892호 비 디올**은 9번째 출시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디올 아드미스트 린스틱의 컬러와 매칭해 바를 수 있도록 고안한 매혹적인 자켓 에. 랩이다. 광택이 생기는 핑을 함유해 어느 각도에서도 반짝임을 자랑하는 것이 특징. 원 컬러는 물론 딥 프렌치로 발라도 세련되고 섹시한 컬러가 돋보인다.(10ml 9천3천원). 에디터 권유진

프랑크 코르크트르



The Inquisitive 2015 Bluestone and Steel Courtesy of Studio Rondinone

Exhibition
〈우고 론디노네〉展

도시 한복판에서 원조적인 자연을 환기해주는, 그러면서 조형이 주는 감흥을 제대로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주목할 만한 전시가 서울을 찾아왔다. 스위스 출신으로 뉴욕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우고 론디노네(Ugo Rondinone) 개인전이 서울 소격동 국제갤러리(www.kukjegallery.com) 3관에서 오는 10월 11일까지 열린다. 2007년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우르스 피셔와 함께 스위스관을 대표하는 작가로 선정되기도 한 론디노네는 오래된 올리브 나무의 분을 떠 알루미늄으로 주조하는 등 재료를 다루는 방식이 특이하고 개념적인 인물로 성(성), 권태, 자연, 그리고 일상의 변화하는 분위기를 중점적인 작품 주제로 다루었다. 이번 국제갤러리의 전에서는 5개로 이뤄진 청색 조각 시리즈를 소개하는데, 자연 그대로의 모습에 가까운 원재료가 거울면에서도 은근히 인간의 형상을 드러내는 묘미를 선사한다. 인간과 성상이 연결해 있다는 의미를 담아 강산자의 마음에 '고요한 파동'을 선사하는 흥미로운 연작이다. 작가 자신이 거주하는 뉴욕 근교에서 재료를 가져다 썼다고 한다. "제 작품과 함께한 시간이 예술과 본인에 대해 성찰하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예술이란 경량되어야 하는 것이니까요." "시간의 자연스러운 소용돌이를 일으키는 표현이 마음에 와 닿는 론디노네의 동 형상은 작가의 알차린 직접 마주해야 할 가치가 충분하다. 문의 02-735-8449 에디터 고성연

이디자 갤러리, 국제갤러리





브랜드를 상징하는
버클 장식으로
포인트를 추가
사이즈 43만원
프로엔자술러.

멋스러운 프린지 장식의 버건디
스웨이드백, 26.5x37cm,
3백만원대 버버리.

트렁크에서 영감을 얻은 유니크한 디자인의 브리드 말백, 18x12cm,
6백10만원대 루이비통.

세련된 블루 가죽
스트랩과 자개 다이얼,
12개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레일로드
레이디 워치 2백12만원
해밀턴.

리본 디테일이 여성스러운
체르
패턴 울코트 5백20만원대 프라다.

체인 모티프를 그래픽적으로 재해석해
프린트로 더한 백을 40만원대 에르메스.

투박한 나무 굽이 빈티지하고 모스라는 그린 컬러
스트랩 슈즈 1백10만원대 사베.

시리우스의
아이스테이 아델 에니 쥘유니

플러워 모티프의
크리스탈 브로치
40만원대 프라다.

시리우스의
아이스테이 아델 에니 쥘유니

여성스러운 둥근
세이프의 퍼를 컬러 모자
50만원 해밀 카인스키.

골드 버클, 스킨가방이
클러지는 로퍼 70만원대 토즈.

세시한 표범 모티프가 매력적인 클러저, 35x24cm, 가격 미정 스텔라 매카트니 by 분더샵.

에스닉한 패턴의 폴리코트
1백43만원 에트로.

- 프라다 02-3442-1830
- 프로엔자술러 02-3479-6082
- 보테가 베네타 02-3438-7882
- 룩스타가 코리아 02-501-4436
- 버버리 버버리 프로섬 02-3485-6536
- 해밀턴 카인스키 1544-5393
- 분더샵 02-2056-1232
- 해밀턴 02-3149-9593
- 루이비통 02-3432-1854
- 에르메스 02-544-7722
- 에트로 02-511-2573
- 토즈 02-3438-6008
- 사벨 02-543-8700

원래가 울의 단층적인
패턴과 카우치 소재를 사용한
로퍼 70만원대 보테가 베네타.

ZEGNA.COM
XXXX



Ermenegildo Zegna
COUTURE



artists and Pets

여로부터 많은 예술가가 자신의 반려동물에게서 영감을 얻어 작품을 만들었다. 현대에는 미술가뿐 아니라 건축가, 디자이너도 반려동물을 주인공으로 한 재미 발랄한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사랑스러운 동물에게서 영감을 얻는 국내외 아티스트들의 작품 세계.

발튀스와 일본의 예술가들

아티스트는 세상 모든 것에서 영감을 얻는다. 반려동물도 예외일 수는 없다. 아티스트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며 희로애락을 나누는 반려동물은 아티스트에게 영감의 원천이며 험한 세상 속의 피란처와 같은 위안을 준다. 뉴욕과 상하이에서 반려동물에게 영감을 받은 미술가의 흥미로운 작품 전시가 있었다. 뉴욕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의 <발튀스: 고양이와 소녀들-회화와 도발(Balthus: Cats and Girls - Paintings and Provocations)>, 그리고 상하이 허말리아 뮤지엄의 <개를 위한 건축(Architecture for Dogs)>이 그것이다. 이번 전시에서 처음 공개된 발튀스(Balthus)의 작품 '미츄(Mitsou)' 시리즈는 발튀스가 10대 시절에 발간한 책에 수록된 것으로, 잃어버린 고양이를 찾아 떠난 모험을 그린 40컷의 잉크화다. 작은 고양이에게 자신의 마음을 투영하는 발튀스는 자서전을 통해 언제나 순수한 어린이이로 남고 싶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그래서인지 발튀스는 사춘기 소녀의 에로틱한 그림으로 유명하기도 한데, 이 시리즈에 등장하는 소녀는 그의 동경의 대상이고 소녀와 함께 있는 고양이는 자신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www.metmuseum.org).

상하이 허말리아 뮤지엄에서 전시 중인 <개를 위한 건축>은 2012년 미국 아트 바젤 & 디자인 마이애미에서 첫선을 보인 일본 아티스트들의 전시가 세계 순회로 이어진 것이다. 일본의 유명 건축가 하라 겐야가 예술감독을 맡아 본인을 비롯해 총 13개 팀 아티스트가 창작한 개를 위한 디자인 작품을 선보였다. 이 프로젝트가 흥미로운 것은 홈페이지(architecturefordogs.com)를 통해 작품의 디자인 도면을 누구나 무료로 다운받아 스스로 만들 수 있도록 했다는 점 때문이다. 사람과 동물이 모두 행복해질 수 있도록 배려한 아티스트들의 마음 씀씀이가 놀랍다. 하라 겐야 예술감독은 유감스럽게도 요즘은 개를 키우지 않지만 그가 선보인 작품은 티킵 푸들을 위한 계단 'D-터널(D-Tunnel)'이다. 사람이 아니라 개의 관점으로 계단을 만들었다.

건축가 나이토 히로시는 스피츠를 위한 '도그 쿨러(Dog Cooler)'를 통해 이제는 세상에 없는 반려견 페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승화시켰다. 열여섯 살의 나이에 하늘나라로 간 페페는 여름철이면 너무 더워서 바닥에 축 늘어져 있던 했는데, 나이토 히로시는 만약 페페가 무더위에 시달리지 않았다면 더 오래 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시원하게 해주지 못했음을 후회했다. 그래서 페페에게 헌정하는 작품을 만들었는데, 나무와 쇠로 이루어진 부드러운 곡선 위에서 강아지가 시원하고 안락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다. 털이 복슬복슬한 반려견의 주인이라면 이 작품 도면을 참조하시라.

오랫동안 곁에서 가족과 친구로서 함께 지내던 반려동물이 세상을 떠난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다. 미술가 이불은 도쿄 모리미술관과 아트선재센터에서 열린 개인전에서 사랑하는 진돗개의 마지막 모습에서 영감을 얻은 작품을 발표할 바 있다. 미술가 김병중은 하늘나라로 간 자신의 반려견 자스민을 그린 작품집 <자스민, 어디로 가니?>을 발표했다. 아라리오 뮤지엄의 김창일 회장(CI KIM)도 11월 1일까지 열리는 개인전 <CI KIM THE ROAD IS LONG>을 통해 반려견 쟁이를 추억하는 드로잉 작품을 몇 점 선보이고 있다. 어느 날 갑자기

기 세상을 떠난 쟁이를 통해 아티스트는 생명의 덧없음을 새삼 느끼게 되었다고(www.arariogallery.com). 이렇듯 사랑스러운 반려동물들은 살아생전 아티스트에게 사랑을 주고, 죽어서는 영감을 남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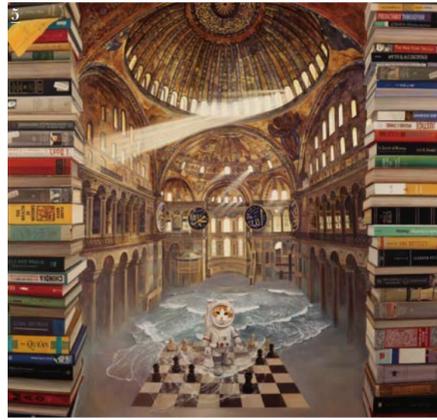
권오상 작가의 '쿠마' 사진 조각 시리즈

미술가 권오상은 주위 사람들을 모델로 사진 조각 '데오도란트 타임'을 만들어왔다. 친구와 가족, 가수, 배우, 패션 모델, 그리고 반려동물도 기꺼이 그의 피사체가 된다. 그는 2001년 인사미술공간에서 열린 자신의 첫 번째 개인전에서부터 반려동물 사진 조각을 선보였다. 부모님이 키우는 개의 모습을 사진 조각으로 표현해 전시했고, 이후에는 친구들의 강아지와 같은 품종의 개를 작품으로 묘사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그가 키우는 사랑스러운 고양이 쿠마를 주인공으로 한 작품을 여러 점 선보였는데, 실제 쿠마는 그레이 컬러의 고양이인데 브라운 컬러 작품도 있어 의아했다. 이는 권오상 작가의 독특한 작업 방식에서 비롯된 차이점이다. 그는 실제 고양이를 촬영해 사진 조각으로 만들거나, 인터넷에서 찾은 고양이 사진을 프린트해서 작품을 만들기도 하기 때문이다. 브라운 컬러의 고양이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얻은 이미지를 출력해서 만든 쿠마의 또 다른 창조물인 셈이다. '우마(Uma)'라는 작품도 사랑스러운데, 우마는 작가의 동생이 키우는 페르시아 고양이이다. 작가는 쿠마 작품이 2012년 열린 개인전 분위기를 유쾌하게 만드는 데 일등 공신 역할을 했다는 에피소드를 들려주었다. 개인전 중 '홍상들'이라는 작품에서 친구들의 홍상을 만들어 한꺼번에 전시했더니 예상과는 다르게 분위기가 너무 진지해졌다는 것. 그래서 쿠마와 타조, 표범, 미아켓의 홍상을 만들어 같이 설치했더니 분위기가 훨씬 유쾌해졌다고 한다. 작가의 귀여운 고양이는 최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의 <소란스러운, 뜨거운, 넘치는>전에도 등장했다. 사진 조각 '나무'의 고양이들은 작가의 고양이와 친구들의 고양이(www.mmca.go.kr).

미술가 김지평과 이경미의 고양이들

미술가 김지평은 고양이와 등장한 그림으로 그림책 <노래하지 않는 피아노>(비룡소)를 만들었다. 첼리스트 정명화가 자신의 딸 꽃별과 꽃샘의 어린 시절에서 유래된 이야기를 쓰고, 김지평 작가가 그림을 그려 가나아트센터에서 원화 전시회도 가졌다. 작가는 그림책의 내용에 직접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지만, 페이지마다 사랑스러운 고양이 토라를 등장시켜 감동을 극대화했다. 그림 속 고양이는 실제와 마찬가지로 주인공 곁에서 항상 작은 힘이 되어주는 존재다. 토라가 작가 곁을 묵묵히 지키는 가족이자, 작가에게 에너지와 영감을 주는 존재라는 사실을 작품에 반영한 것이다.

미술가 이경미는 그간 발표한 고양이 그림 작품을 모은 저서 <고양이처럼 나는 혼자였다>(샘타urus)를 발간하기도 했다. 작가의 작품에는 네 마리의 고양이 나나, 주디, 바바, 령켄이 등장하는데, 고양이들은 그녀를 상징하는 자화상이자 오랜 친구, 사회의 소수자, 기피 대상을 뜻



하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구성원의 다양성이나 소수의 가치에 대한 담론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동물도 하나의 생명체이며 약자로서 존중해야 한다는 의식이 약하다. 작가는 말 못하는 동물의 권리도 배려해주는 사회라면 당연히 소외 계층의 의견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회 의식이 확립된 성숙한 사회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이야기한다. 다수를 위해, 인간을 위해, 권력을 위해 소수의 희생을 강요하지 않는 사회가 되기를 고대하는 마음이 그림에 담겨 있는 셈이다. "강아지들도 키우고 있으며 무척 사랑하지만, 고양이 그림을 그리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기성세대는 나의 작품을 보고 고양이를 그리는 의도를 전혀 이해하려 하지 않고 무시하는 발언을 많이 합니다. 기성세대에게는 고양이와 쓰레기봉투를 들고 충성심이 없는 요물일지 몰라도, 한때 힘든 나날을 보낸 나에게는 우주를 관조하듯 마음에 위로를 준 존재가 바로 고양이들이었다는 주관적 의미를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첫 번째 반려동물인 나 나에게 아무래도 큰 애정이 가지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직후 우리나라가 IMF로 힘들 때부터 함께했기 때문이지요." 작가는 어둠 속에서 방향할 때 나나의 깊고 맑은 파란 눈동자를 보며 이해받고 있음을 느꼈고 위로를 받았다고 한다. 그래서 자신의 작품도 누군가에게 그런 위안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 얼마 전에 랭겐이 하늘나라로 갔는데, 현재 샌프란시스코 베이에 잠시 거주하고 있는 작가는 나이 많은 나나와 조금이라도 오래 함께 있고 싶어 최근 미국으로 나나를 데리고 왔다. 그렇다고 미술가들이 고양이만 편애하는 것은 아니다. 바이마라너(Weimaraner)종의 개를 촬영해 의인화하는 미국의 사진작가 윌리엄 웨그먼(William Wegman)의 작품은 누구나 한 번쯤 본 기억이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개관 기념 풍포드센터 소장품전 (비디오 빈티지: 1963~1983)전에서 그의 초기 작품을 감상할 수 있었다. 그의 집에는 여러 마리의 바이마라너 개들이 뛰어놀고 있으며, 작가는 매일 그들을 관찰하며 작품을 만든다. 미술가 데이비드 호크니(David Hockney)는 닥스훈트를 키웠는데, 얼마 나 반려견을 사랑했는지 많은 작품을 그렸고, 저서 <데이비드 호크니의 도그 데이(David Hockney's Dog Days)>도 발간했을 정도다.

반려견에게 가구를 허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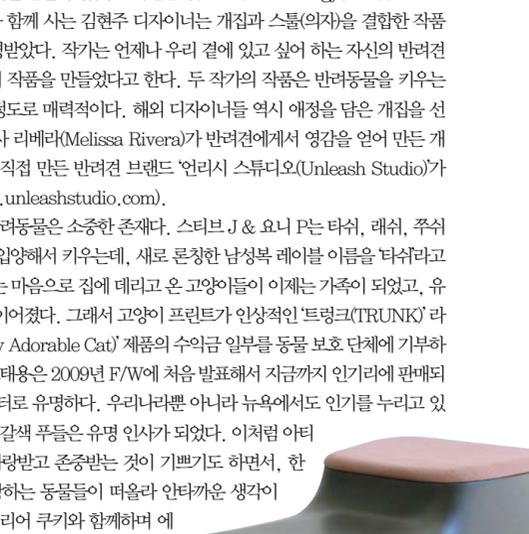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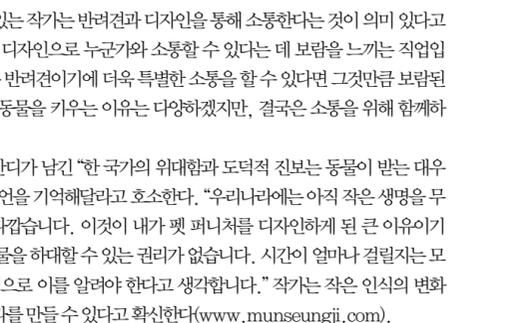
가구 디자이너 문승지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반려동물 가구 디자인 브랜드 '엠뎀(Mpup)'을 론칭했다.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도그 하우스' 소파, 인터넷이 소품 역할을 하는 '뱃 하우스', 소파의 버려진 공간을 활용한 '웨어즈 소파' 등이 그의 대표작이다.

1 발튀스는 소설가 알베르 카뮈가 극찬한 미술가이며, 루브르 컬렉션에 살아생전 이불을 물린 유일한 미술가다. 'The Cat of La Méditerranée', 1949년, Oil on canvas, 50 X 72 7/8 in. Private collection © Balthus 2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풍포드센터 소장품전 (비디오 빈티지: 1963~1983)전에서 윌리엄 웨그먼의 초기 작품을 감상할 수 있었다. 3 미술가 김지평은 가나아트센터에서 첼리스트 정명화와 함께 만든 그림책 <노래하지 않는 피아노> 원화 전시를 열었는데, 모든 작품이 판매되었다. 4 미술가 권오상은 고양이 쿠마를 주인공으로 한 작품을 여러 점 선보이고 있다. 5 미술가 이경미는 고양이에게서 위안과 영감을 얻는다. <이경미 6 디자이너 멜리사 리베라가 수상 구조대에서 영감을 얻어 만든 개집. 7 패션 디자이너 스티브 J & 요니 P는 '마이 어도러블 캣' 제품의 수유급 일부를 동물 보호 단체에 기부한다. 8 이탈리아 디자이너 마르코 모로시니(Marco Morosini)의 '트라벨 도그 하우스'와 '노베드 도그 하우스'는 도자기로 만들었지만 그렇게 무겁지는 않다. 9 디자이너 문승지의 '도그 하우스' 소파와 '뱃 하우스'. 10 개를 위한 건축전에 전시 중인 건축가 이토 도오(Itto Teo)의 작품. ©Hiroshi Yoda 11 시베리안 허스키와 함께 사는 김현주 디자이너의 작품 '해피리버'.



반려견 볼트와 함께 살고 있는 작가는 반려견과 디자인을 통해 소통한다는 것이 의미 있다고 이야기 한다. "디자이너는 디자인으로 누군가와 소통할 수 있다는 데 보람을 느끼는 직업입니다. 그 대상이 말 못하는 반려견이기에 더욱 특별한 소통을 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보람된 일이 있을까요? 다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결국은 소통을 위해 함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승지 작가는 마히트마 간디가 남긴 "한 국가의 위대함과 도덕적 진보는 동물이 받는 대우로 가늠할 수 있다"라는 명언을 기억해달라고 호소한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작은 생명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것이 내가 펫 퍼니처를 디자인하게 된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인간에게는 동물을 하대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는 지속적으로 이를 알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가는 작은 인식의 변화가 더 나은 삶, 더 나은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한다(www.munseungji.com). 시베리안 허스키 초록이와 함께 사는 김현주 디자이너는 개집과 스톨(의자)을 결합한 작품 '해피리버'를 선보여 호평받았다. 작가는 언제나 우리 곁에 있고 싶어 하는 자신의 반려견 모습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작품을 만들었다고 한다. 두 작가의 작품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탐낼 정도로 매력적이다. 해외 디자이너들 역시 애정을 담은 개집을 선보이는데, 디자이너 멜리사 리베라(Melissa Rivera)가 반려견에게서 영감을 얻어 만든 개집을 보시라. 디자이너가 직접 만든 반려견 브랜드 '언리시 스튜디오(Unleash Studio)'가 인기를 모으고 있다(www.unleashstudio.com).

패션 디자이너들에게도 반려동물은 소중한 존재다. 스티브 J & 요니 P는 타슈, 래쉬, 쥬쉬라는 길고양이 세 마리를 입양해서 키우는데, 새로 론칭한 남성복 레이블 이름을 타슈라고 명명하기도 했다. 가엾다는 마음으로 집에 데리고 온 고양이들이 이제는 가족이 되었고, 유기 동물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그래서 고양이 프린트가 인상적인 '트렁크(TRUNK)' 라인의 '마이 어도러블 캣(My Adorable Cat)' 제품의 수유급 일부를 동물 보호 단체에 기부하고 있다. 패션 디자이너 고대용은 2009년 F/W에 처음 발표해서 지금까지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도그 맨투맨 스웨터'로 유명하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뉴욕에서도 인기를 누리고 있으며, 덕분에 그의 반려견 갈색 푸들은 유명 인사가 되었다. 이처럼 아티스트들의 반려동물들이 사랑받고 존중받는 것이 기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굶주리고 학대당하는 동물들이 떠올라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열 살짜리 요크셔테리어 쿠기와 함께하며 에너지를 얻고 있는 필자 역시 그로부터 이 기사에 대한 영감을 얻었으니, 가엾은 동물에 대한 대책을 다시 한 번 생각해주시길 바란다. **18 클 이소영**(사진 미술에 종사하다), (서울, 그 키베 홀더) 저자



high Moon

달의 움직임을 밤이 아닌 낮에도, 하늘이 아닌 손목 위에서도 느낄 수 있다면 시간은 더욱 풍부한 의미를 지닐 것이다. 반짝이는 별빛 아래 드러나는 달의 아름다움과 시계의 가치를 높여주는 특별한 기능까지 갖춘 문페이즈 워치 컬렉션.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오데마 피게 줄스 오데마 피게 줄스 칼린더 오데마 피게의 창시자 중 한 명인 줄스 루이스 오데마가 디자인한 무브먼트를 장착한 컬렉션. 1978년 출시한 울트라 슬림 셀프와인딩 피페추얼 칼린더를 재탄생 시켜서 2013년 돌아오는 워치 피규어 워치, 날짜, 문페이즈까지 정교하게 구현했다. 칼리버 2120/2802를 장착했는데 두께는 4mm에 불과하다. 문페이즈가 클래식한 매력 을 더한다. 가격 미정. 문의 02-3449-5917

에거 로블트르 마스터 울트라 싼 문 브랜드를 대표하는 정교하고 얇은 칼리버 925를 장착한 워치에 날짜와 문페이즈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디자인을 더해 심플하게 완성한 컬렉션. 수트에 어울리는 드레스 워치로, 보기 드문 산티아 페란의 블랙 다이얼이 골드 브라운 문페이즈 기능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1천3백 원대. 문의 02-3213-2236

제노스 엘 프리메로 르노노마스터 그랜드 데이브 시간당 30분씩 변하는 고스톱 무브먼트의 상징인 엘 프리메로를 장착한 시그니처 워치에 문선 페이즈 기능을 더해 다이얼을 아름답게 구성했다. 끊임 없이 회전하는 엘 프리메로 무브먼트와 달과 태양의 위치에 따라 움직이는 문선 페이즈 창이 대화를 이루어 더욱 아름답다. 칼리버 4047을 장착했다. 1천5백 원대. 문의 02-2118-6225

피르미자니 톨다 섀넬 일년치인 문페이즈 디자인에서 벗어나 달과 태양의 위치 변화를 볼 수 있도록 6시 방향에 2개의 원형 창을 배치한 독특한 문페이즈 기능의 워치. 월과 요일을 표시하는 창을 시계 정중앙에 배치한 것, 날짜 기능을 레트로그레이드로 표현한 것도 특이한 점이다. 로즈 골드 케이스에 도파람을 연상케 하는 세로 줄무늬를 가미해 브랜드 고유의 우아함을 드러냈다. 8천8백 원대. 문의 02-310-1737

블랑팡 발레레 피페추얼 칼린더 클래식한 워치의 상징인 블랑팡의 발레레 컬렉션에 피페추얼 칼린더와 문페이즈를 장착한 모델. 셀프와인딩 칼리버 5939A는 8일간의 파워 리저브, 시원하게 보이는 문페이즈 창, 스몰 세컨즈 기능을 적용했다. 백메이시의 언더 리그 코렉터를 통해 별도의 도구 없이 날짜와 문페이즈 인디케이터를 조정할 수 있어 더욱 매력적이다. 가격 미정. 문의 02-3149-9597

몽블랑 해리타지 크로노메트리 칼린더 해뉴얼 월과 요일, 날짜를 표시하는 스몰 다이얼과 정교하게 세공한 구름의 모습을 표현한 문페이즈가 만나 클래식 워치의 정석을 보여준다. 굳다다기 없이 깔끔한 드레스 워치를 찾는 이들에게 추천한다. 고가의 워치에서 볼 수 있는 문페이즈 기능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인다는 것도 매력적이다. 8천800 원대. 문의 02-2118-6053

오메가 스피드마스터 문워치 문페이즈 달 착륙에 함께하며 시계 역사에 가장 인상적인 획을 그은 오메가의 스피드마스터, 달의 상징과도 같은 이 워치에 문페이즈를 장착한 디자인으로 소장 가치가 높다. 블랙 컬러의 아벤츰린 다이얼, 크로노그래프 핸즈, 올 블랙 컬러의 바늘 등은 디자인이 매력적이다. 해뉴얼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 1866을 장착했다. 1천3백 원대. 문의 02-2143-7266 에디터 베이진

emporioarmaniswissmade.com - ARS 8005



EMPORIO ARMANI
SWISS MADE

Vintage romance

유서 깊은 브랜드만이 재현할 수 있는
 독특한 세팅 기법과 고귀하고 이색적인 원석이 만나 유니크한 무드의 주얼리가
 탄생했다. 서랍장 깊은 곳에서 발견한 듯 빈티지한 매력적인 주얼리 컬렉션.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왼쪽 윗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핑크 크림 진주, 피어 컷 옐로 사파이어를 세팅해 베이스의 무드를 전하는 산 마르코 링 3천원원대 **사넬 화인 주얼리**, 8.81카럿 핑크 카보숑璞를 품에 안고 있는 사자 모티브의 수블리 링, 브랜드 고유의 정교한 세팅 기법을 고스란히 담았다. 5천원원대 **부세론**, 블루 사파이어, 칼세도니, 라피스 라줄리, 터퀴이즈, 문스톤, 이라미린 등 다양한 유색석과 다이아몬드의 조화가 아름다운 파리 누벨버그 컬렉션 링, 청회색의 캔디를 연상케 한다. 5천3백원원대 **까르띠에**, 고풍스러운 무에서 열리는 다양한 컬러의 과일에서 영감을 받은 레드 링 1백30만 원대 **루시예**, 우수한 공이 가지 끝에 모여 존재감을 드러내는 수컷에서 영감을 받은 와이드 부케 라디언스 아이빙 가격 미정 **타사키**, 옐로 골드에 그린 컬러 크리스탈이 원석을 대담하게 세팅한 파리 누벨버그 향유선 링, 달콤한 디자인에서 영감을 받았다. 3천5백원원대 **까르띠에**, 하이 주얼리 네그리스의 짐공장처럼 사용하는 오픈 모티브의 주얼리, 짐공장처럼 사용하거나 분리해서 브로치로 활용할 수 있다. 가격 미정 **부세론**, 빈티지한 스키 블루 터퀴이즈와 진한 네이비 컬러의 라피스 라줄리가 산뜻하게 빛나는 디바 컬렉션 네그리스, 각 2백만 원대 **불가리아**, 부부의 장수를 상징하는 뱀에게서 영감을 받은 새빨간 옐로 골드 링, 다이아몬드와 핑의 비늘을 연상케 하는 빈티지한 골드 세공이 매력적이다. 1천원원대 **부세론**, 날아다니는 나비 두 마리를 모티브로 한 투버터플라이 컬렉션, 핑크 사파이어와 다이아몬드가 아름답게 어우러졌다. 3천1백원원대 **반클리프 프 아펠**, 빈티지 주얼리의 독보적인 매력을 담은 카보숑 컷 핑 드 쉬크르 인터라인저를 핑크 골드 링, 빛에 반사되는 원석의 아름다움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디자인으로 바이올렛 컬러 에미나스트를 세팅했다. 1천원원대 **프리에트**, 장수를 상징하는 거북, 핀던트 오퍼 로즈 귀걸이, 목에 걸고 있는 것만으로도 부자처럼 든든하게 느껴진다. 1천원원대 **부세론**, 에디터 베이진

까르띠에 1566-7277 반클리프 아펠 02-3440-5660 부세론 02-3213-2246 루시예 02-512-6914 타사키 02-3461-5558 불가리아 02-2056-0172 사넬 화인 주얼리 02-3442-0962 프리에트 02-514-3721

촬영: 박건우 (02-3785-3709)



ISSEY MIYAKE

THE SHILLA SEOUL Tel.02-2231-6282 HYUNDAI MAIN Tel.02-3438-6290 HYUNDAI COEX Tel.02-3467-8433 HYUNDAI KINTEX Tel.031-822-3277
 HYUNDAI PANGYO NOW OPEN HYUNDAI BUSAN Tel.051-667-0440 HYUNDAI DAEGU Tel.053-245-2225 HYUNDAI ULSAN Tel.052-228-0475
 SHINSEGAE MAIN Tel.02-310-5358 SHINSEGAE GANGNAM Tel.02-3479-1787 SHINSEGAE GYEONGGI Tel.031-695-1383
 SHINSEGAE CENTUM CITY Tel.051-745-2468 LOTTE MAIN Tel.02-2118-6099 LOTTE JAMSIL Tel.02-2143-7213 LOTTE BUSAN Tel.051-810-4217
 AK PLAZA BUNDANG Tel.031-781-8258 DEBEC PLAZA Tel.070-7123-8367
 ©2015 ISSEY MIYAKE INC.

www.isseymiyake.com

GALLERIA WEST
GALLERIA TIMEWORLD
SHINSEGAE GANGNAM
SHINSEGAE MAIN
SHINSEGAE CENTUM

Powerful Edge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스펀, 브라운, 골드 스타드 장식으로 화려하게 포인트를 준 골드라쉬 슬링백 펌프스 1백50만원대 **루이 비통**, 뾰족한 스타드 장식이 강렬한 투톤 컬러의 페이퍼트 슈즈 2백7만원 **크리스찬 루부탱**, 단한 칼라감의 스와로브스키 장식이 돋보이는 골드 컬러 펌프스 2백만원대 **보테가 베네타**, 기존의 시그니처 로퍼를 슬리퍼로 재해석하고 강가루 퍼우 위트를 다한 홀스빗 로퍼 슬리퍼 87만원 **구찌**, 관능적인 스트랩 장식과 세시한 알코가 매력적인 슈즈 1백53만원 **자헨시**.



all that Flats

흔하고 편한 플랫 슈즈가 아니다. 출시하자마자 SNS를 뜨겁게 달군 퍼 슬리퍼부터 어딜 가든 시선을 끌 화려한 주얼 장식의 로퍼까지, 요즘 가장 핫하다고 자부할 수 있는 플랫 슈즈가 트렌드의 정상에 섰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Unique Loafer

(왼쪽 아래부터 시계 방향으로) 그래픽적으로 카탈한 프란자와 태슬 장식, 트레킹에서 불변한 레이아웃 디테일까지 개성이 돋보이는 레드 컬러 레이아웃 로퍼 95만원 **토즈**, 발등을 감싸는 스트랩 장식이 눈에 띄는 블랙 & 화이트 핑 톱 슈즈 1백96만원 **툼 브라운**, 알코의 여성스러운 진주 장식과 강엄 패턴의 트윈드 소재가 눈길을 사로잡는 레이아웃 슈즈 1백65만원 **시몬 로사 by 분다삼**,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리듬감 있게 울리는 진주 링으로 화려하게 장식한 블랙 로퍼 89만원 **콜라안 by 분다삼**, 다양한 컬러와 관성 디테일로 포인트를 준 브라운 컬러 로퍼 69만원 **로베르 콜라제리 by 마이분**, 에디터 권유진



스타일링: 유영정 어시스턴트: 이영

구찌 1577-1921 루이 비통 02-3432-1854 마이분 02-6947-1270 보테가 베네타 02-3438-7682 분다삼 02-2056-1232 자헨시 02-517-7561 토즈 02-3438-6008 톼 브라운 02-6905-3697 크리스찬 루부탱 02-6905-3795



DVF
DIANE VON FURSTENBERG

DVF SECRET AGENT

A FILM BY PETER LINDBERGH STARRING KARLIE KLOSS
DVF.COM #DVFSECRETAGENT

Style perfection

똑같은 옷이라도 잘 고른 액세서리 하나로 감각적인 스타일로 거듭날 수 있다. 출근 전, 거울에 비친 모습을 보며 '뭔가 좀 부족하다'라고 느꼈던 이들에게, 부족한 2%를 채워줄 액세서리 셀렉트 숍 일모(ILMO)를 추천한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스타일을 완성하는 곳, 일모

남성들의 대부분은 쇼핑할 때 이곳저곳을 둘러보기보다는, 한 매장에서 모든 걸 해결하기를 좋아한다. 반면 여성들은 심플하지만 나만의 스타일을 보여줄 수 있는 브랜드를 원한다. 이런 점에서 일모는 기방부터 슈즈, 벨트, 스카프까지 다양한 액세서리로 남녀 모두를 만족시킬 새로운 쇼핑 공간이 되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췄다. 지난 8월,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을 시작으로 셀렉트 숍으로서 첫발을 내디딘 일모. 다양한 제품 뿐만 아니라 품질이 뛰어난 액세서리를 합리적인 가격대에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주력 상품인 가방은 20만원대부터 시작해 가격의 거품을 덜었다. 일모는 단순하지만 균형을 이루고 실용성을 추구하는 북유럽 디자인 정신에서 영감을 받은 제품을 주로 소개하는데, 스칸디나비아 모더니즘의 선구자로 불리는 덴마크 디자이너 카이 보예센(Kay Bojesen)의 목각 인형 작품에서 영감을 받은 카이 백과 핸드 스티치 장식의 미니 플랩이 특징이며 핀란드 디자이너이자 조각가인 티모 사라파네바(Timo Sarapaneva)의 유리 작품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티모 백이 눈에 띈다. 클래식부터 캐주얼까지 어떠한 스타일이나 두루 잘 어울리는 일모의 제품은 감각 있는 비즈니스 피플의 타임리스 아이템으로 성장할 준비를 마쳤다.

클래식과 컨템퍼러리의 만남

일모는 고급스러운 소재와 차별한 색감이 특징인 클래식 라인에 군더더기 없이 심플한 디자인이 주를 이루는 컨템퍼러리 라인으로 나뉜다. 세련된 클래식 라인 제품은 무엇보다 '소재'에 집중했다. 소재가 좋은 백과 신발일수록 사용하면서 그 가치를 더하듯이, 가죽에서 느껴지는 부드러운 촉감과 구조적인 심플함은 클래식 라인에서만 느낄 수 있는 특징이다. 이러한 장점이 잘 드러난 소가죽 브리프케이스와 스웨이드 소재의 드레스 슈즈는 평소 클래식 슈트를 즐겨 입는 남성에게 어울릴 만한 아이템이다. 브라운 톤의 브리프케이스 하나만 있어도 다양한 구두와 벨트에 스타일링할 수 있으니 만능 아이템이 아닐 수 없다. 가장 다음으로 주목할 아이템은 슈즈. 좋은 신발이 좋은 곳으로 데려다준다는 말처럼 일모의 슈즈는 퀄리티 높은 소가죽을 사용해 수작업으로 완성한다. 시즌별 MTM 서비스를 제공해 나만의 슈즈를 제작하고 싶은 이들의 마음까지 사로잡을 예정이다. 간결하고 심플한 컨템퍼러리 라인에는 형태와 균형, 무엇보다 실용성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이번 2015 F/W 트렌드 중 하나인 '젠더리스'를 표방한 여성화를 출시해 남자 친구와 함께 쇼핑 온 여성들도 일모의 제품을 접할 수 있을 것. 슈즈 역시 비즈니스 캐주얼 트렌드를 반영해 오피스 룩은 물론, 주말에도 착용할 수 있는 세미 슈즈 라인을 선보였다. 그중 스웨이드를 적극 활용한 스니커즈는 등산화에 적용하는 초경량 밀착과 미끄럼 방지 기능을 더해 일모의 세심함을 엿볼 수 있다. 같은 라인의 티모(TIMO) 백은 바랜 듯한 자연스러운 질러와 바튼 디테일이 부드럽게 조화를 이룬다. 특히 남녀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이 제품은 실용성을 강조한 라인답게 파티션으로 내부 수납공간을 넓혔고, 스마트한 포켓 디자인으로 가방 속 물건을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구매욕을 불러일으킨다. 고급스럽지만 무게가 있는 가죽의 단점을 보완한 하이브리드 브리프케이스는 가볍고 넉넉한 사이즈에 엘리베이터 연보 패턴을 더해 스타일링에 포인트가 되어줄 것. 이외에도 양가죽, 시스가죽을 사용해 착용감이 좋은 장갑과 포인트 액세서리에 관심 많은 이들을 위한 커프스 링크, 브레이슬릿까지. 꼭 필요한 액세서리가 한자리에 모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일모에서 당신의 스타일링 감각을 업그레이드해보자. 문의 1599-0007 **에디터 김자혜**



1 (왼쪽부터) 스웨이드 소가죽으로 제작된 깔끔한 디자인의 스니커즈 25만원, 간소한 소가죽 장갑을 살린 미들층 스니커즈 31만원, 양쪽 사이드 부분을 펼쳐면 또 다른 스타일로 연출할 수 있는 여성용과 남성용 티모 백, 유행 타지 않는 디자인으로 데일리 백으로 제격이다. 각 39만원, 50만원. 2 액세서리 셀렉트 숍으로서의 일모의 첫 매장인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백, 슈즈, 벨트, 지갑, 넥타이 등 북유럽 디자인의 장식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액세서리가 마련되어 있다. 3 리얼 악어 가죽의 느낌을 재현한 보스톤 백. 낙낙한 사이즈로 출장이나 여행용으로도 사용 가능하며, 크로스용 스트랩을 내장해 실용성을 더했다.



The world's best trousers.

INCOTEX

A SLOWEAR BRAND

Seoul Flagship Store: Dosaan Park tel. 070-4145-0101 / check the other stores on: slowear.com/stores

심플한 팔각형 화이트 골드 케이스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보이·프렌드
워치 M 사이즈, 케이스 사이즈
34.60x26.70mm로 아담
스타일과도 잘 어울린다. **샤넬 화인
주얼리**, 에펠바이스 플라워 자수
장식이 특징인 울 소재의 파리-
잘츠부르크(Paris-Salzburg)
컬렉션 재킷 **샤넬**.

화이트 골드 케이스에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한 보이·프렌드
워치 L 사이즈, 케이스 사이즈
37x28.60mm의 디자인에 매뉴얼
와인딩 메커니즘 무브먼트를 장착했다.
착용한 링은 코코 크러쉬 컬렉션.
모두 **샤넬 화인 주얼리**.

Dandy Girl

남성적인 시계에 파리지엔의 시크함을 더한
샤넬의 새로운 워치, 보이·프렌드(Boy·friend)와 함께한 여배우
고준희의 매력적인 시간. *photographed by ahn joo young*

제품 사진 박건우

샤넬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여성 워치 프리미어(Primere)에서 영감을 받은 팔각형 베이지 골드 케이스의 보이·프렌드 워치 샤넬 화인 주얼리.



베이지골드 케이스에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한 보이·프렌드 워치
L 사이즈, 샤넬 N°5 향수병과
방동 광장에서 영감을 받아 샤넬의
아이코닉한 매력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함께 매치한 커피 브레이크 컬렉션
링은 코코 크리쉬 컬렉션.
모두 샤넬 화인 주얼리.



6시 방향에 스몰 세컨즈
다이얼을 더한 베이지골드
케이스의 보이·프렌드 워치
L 사이즈, 화이트골드 링은
코코 크리쉬 컬렉션, 모두
샤넬 화인 주얼리, 실크 소재
파라-질초부르크 컬렉션
블라우스 샤넬.





심플한 베이지골드 케이스의
보이·프렌드 워치 M 사이즈,
레이어링해 매치한 주얼리는 코코
크라쉬, 사벨 교유의 쥘탕 모티브를
따 완성했다. 모두 사벨 화인 주얼리.



베이지골드 케이스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보이·프렌드 워치 M 사이즈,
블랙 알리케이터 스트랩을 매치했다.
옐로골드 깃털 모티브 이어링은 물론
칼렉션, 화이트골드와 옐로골드 링은
코코 크라쉬, 모두 사벨 화인 주얼리.
문의 02-3442-0862

헤어 하나
메이크업 하나
스타일리스트 김지혜
에디터 배미진, 권유진

urban Performance

남자에게는 열정적으로 일할 때도, 트레킹 라인에서 스피드를 즐길 때도 세련되고 실용적인 아웃도어 시티 웨어가 필요하다. 기능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스타일리시함을 갖출 수 있는 스마트한 선택, 랑방스포츠 2015 F/W 컬렉션.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다운 패딩으로 연출한 소매, 목선의 밴딩 디테일이 특징인 시티 다운 점퍼 85만원, 가볍고 따뜻한 다운 점퍼와 저지 소매를 결합해 활동성을 높인 시티 다운 후드 재킷 95만원, 스타일리시한 포인트 액세서리인 독특한 질감의 스냅백 15만원 모두 랑방스포츠.



(왼쪽 위에서 시계 방향으로) 스포티한 후드 디테일의 니트 장갑 아우터, 단독으로는 물론 재킷, 코트와 레이아웃해도 맞는다. 50만원, 수납공간이 넉넉한 것은 물론 자자와 매시, 벨트 디테일, 세련된 질감 인스가 돋보이는 백팩 52만원, 다양한 원사를 사용해 불규칙한 스트라이프 패턴을 표현한 블루 니트 티셔츠 35만원, 모두 랑방스포츠.

그래픽적인 터치와 기능성 소재의 조우, 랑방스포츠 F/W 컬렉션

올해도 어김없이 아웃도어 룩이 강세인 가운데, 주목해야 할 키워드는 바로 '실용성'이다. 아웃도어 웨어의 덕목은 두말할 것 없이 실용성이지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보다 일상적인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하면서도 어떤 룩과도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스트리트 웨어와 스포츠 웨어의 조합이다. 데일리 룩으로 활용해도 부담스럽지 않도록 현대적인 스포티한 요소를 가미하고,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는 여유 있는 실루엣, 활동성과 보온성을 갖춘 기능성 소재, 심플하고 모던한 디테일을 적용한 것이 이번 스포츠 웨어 트렌드의 대표적인 특징이다. 누구나 떠올릴 수 있는 전형적인 스포츠 웨어는 부담스럽고, 활동적이면서 스타일리시한 룩을 선호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트렌드를 어색히 반영한 랑방스포츠의 감각적인 시티 웨어가 해답이 될 것. 랑방스포츠의 가장 큰 매력은 어떤 연령대이건, 어떤 체형이건 고급스럽고 멋스러운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랑방스포츠만의 감성을 담은 미니멀한 디자인과 여러 발을 레이아웃해 세련된 조합을 완성할 수 있는 컬러와 패턴이 한몫한다. 이번 F/W 시즌에는 현대미술의 역동적이고 활기찬 측면에서 영감을 받아 그래픽적인 타치를 더한 스타일을 주요 테마로, 직선적인 테이밍 디테일과 스트라이프 패턴, 그리고 카키, 버건디, 네이비 등 다채로운 컬러의 대비를 통해 다채로운 컬렉션 선보인다. 외관은 아주 모던하고 군더더기 없는 실루엣으로 비즈니스 캐주얼 룩으로도 손색이 없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두운 곳에서도 인조하게 아웃도어 라이프를 즐길 수 있는 반사월등과 방수 방제 기술인 삼실링 기법을 더한 테크니컬 코트가 대표 아이템. 또 다양한 원사를 사용해 부드러운 착용감을 선사하고 집업 디테일, 방수 후드로 스포티한 느낌을 더한 스트라이프 니트 장갑도 매력적이다. 자자와 매시를 믹스하거나 톤온톤의 세련된 컬러 조합으로 멋스러운 룩을 완성하는 액세서리 라인도 함께 만날 수 있다. 랑방스포츠의 2015 F/W 신제품은 현대백화점 압구정 본점 · 목동점 · 판교점 · 대구점과 롯데백화점 본점 · 장성점 · 부산점에서 판매한다. 문의 02-3438-6252 에디터 권유진



(위부터 아래로) 자자와 매시 소재를 믹스한 쇼퍼백 38만원, 언뜻 배아스런 코트처럼 보이지만 반사월등, 방수 방제 기술인 삼실링 기법을 더해 아웃도어 활동 시 최적의 성능을 자랑하는 테크니컬 코트 95만원, 가족을 영성하는 매끈한 소재와 질감이 독특한 소재를 매치해 감각적인 룩을 완성하는 스냅백 15만원 모두 랑방스포츠.



(왼쪽 위에서 시계 방향으로) 클래식하고 고급스러운 디자인으로 완성한 카키 컬러 스타디움 넥 블루투스 시티 점퍼 70만원, 적당한 광택감이 느껴지는 코트 폴리 소재, 직선 테이프로 감싼 지퍼 디테일, 멋스러운 네크라인과 부분적으로 레이아웃한 표근한 다운 패딩이 매력적인 버건디 컬러 시티 아우터 70만원, 독특한 텍스처가 포인트인 모던한 라인의 백팩 42만원 모두 랑방스포츠.

tradition and Innovation

“누군가가 그들의 전통에 얽매일 때, 다른 누군가는 전통에 근거한 혁신을 꾀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시계 브랜드 블랑팡은 전통적인 위치메이킹 기술에 대한 존경심에서 기인한 ‘지속적 혁신을 통해 끊임없이 정확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_CEO 마크 A. 하이에크(Mark A. Hayek)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시계 브랜드, 블랑팡(Blancpain)

전통과 혁신을 사랑하는 시계 예술의 선두 주자, 블랑팡. 1735년 탄생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시계 브랜드라는 명성을 지닌 블랑팡은 시계 마니아들에게 선망의 대상이며 품격 있는 시계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세계에서 가장 큰 시계 박람회인 바젤월드 대표하는 핵심 브랜드이자, 스위치 그룹의 기틀을 잡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초기 브랜드이기도 하다. 전지로 작동하는 쿼츠 워치 파동 속에서 기계식 시계의 가치를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것도 블랑팡이다. 최초의 시계 브랜드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블랑팡의 역사를 설명하자면 스위스 기계식 워치의 역사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한다. 18세기 당시 루이 14세 치하에서 박해받던 프랑스 프로테스탄트(마틴 루터)를 시작으로 츠빙글리, 칼뱅 등으로 대표되는 신교. 실용주의와 시간의 중요성을 강조해 스위스가 기계식 시계의 중심이 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했다라 불리는 이들은 스위스의 서쪽 지역으로 피란을 갔고, 이 중 일부가 뇌샬 산자락 뒤에 자리 잡은 빌레레 지역에 정착했다. 깊은 산골 마을인 이곳에서 농부, 열쇠공, 염색공은 긴 겨울을 나기 위해 위치메이킹에 관심을 두었는데, 여기서 바로 블랑팡 설립자 예한-자크 블랑팡(Jehan-Jaques Blancpain)이 브랜드를 탄생시켰다. 물론 이전에도 기계식 시계를 만드는 위치메이커가 있었지만, 브랜드 이름을 각인해 기계식 시계를 프랑스에 처음 수출한 것이 블랑팡 이기에 시계 역사에서 블랑팡을 ‘최초의 시계 브랜드’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이 위대한 시계 브랜드의 시작은 소박하고도 진실했다. 창립자는 가족 농장 1층에 작업실과 공장을 만들었는데 이후 1932년 7대손인 프레데리크-에밀 블랑팡(Frédéric-Émile Blancpain)이 타계하기까지 2백여 년간 블랑팡은 이 사업을 이어가며 브랜드의 역사를 쌓아나갔다. 스위스 시계 역사의 중심에서 흔들림 없이 두 세기를 이어나갔다는 것은 매우 상징적인 일이다. 이후 50년간 성실한 위치메이커들이 세계에서 가장 작은 무브먼트를 장착한 여성 워치인 레이디버드(Ladybird), 모던한 다이버 워치의 원형인 피프티 패덤즈(Fifty Fathoms)처럼 시계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제품을 선보이며 브랜드의 기틀을 공고히 해 지금의 브랜드 가치를 정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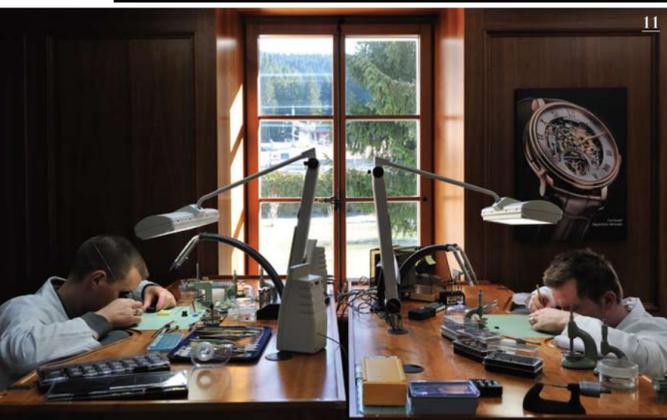
1 블랑팡을 대표하는 빌레레 컬렉션. (왼쪽) 빌레레 까루셀 문페이스 워치, (오른쪽) 빌레레 퍼페추얼 캘린더. 시계를 착용하지 않을 때도 정확한 시간을 맞출 수 있도록 와인더가 들어 있는 케이스와 함께 구성된다. 2 브라스(Brassus)에 위치한 블랑팡 매뉴팩처. 3 빌레레 지역 농가 주택 1층에서 시작한 창립자 예한-자크 블랑팡의 첫 번째 작업실. 이 건물은 현재 국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4, 7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워치인 블랑팡 1735 워치의 무브먼트와 워치. 5 빌레레 컬렉션의 심플한 맥락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빌레레 컬렉션. 6 2015년 바젤월드에서 선보인 블랑팡의 전시장. 8 장인 정신으로 완성하는 블랑팡의 빌레레 컬렉션에는 뛰어난 완성도를 인증하는 코트 뒤 재후바 실이 새겨져 있다. 9 10년 넘게 이어온 빌레레 레트로그레드 스톱 세컨즈. 10, 11 머리카라보다 가는 구성품까지 모두 정교하게 세공하는 블랑팡의 무브먼트.

전통과 혁신을 모두 담은 빌레레 컬렉션

그중 이번 칼럼에서 소개할 블랑팡 워치는 빌레레(Villeret) 컬렉션이다. 블랑팡이 탄생한 지명에서 유래한 이 컬렉션은 이름처럼 브랜드의 얼굴이자 심장이다. 새하얀 에나멜 다이얼에 익살맞은 표정을 표현한 문페이스와 가독성이 뛰어난 로마자가 상징적인 클래식 워치 빌레레 컬렉션은 블랑팡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아이콘이다. 하이엔드 워치 브랜드만이 구현할 수 있는 그랑 피(Grand Feu) 기법의 에나멜 다이얼은 순백의 영롱함을 표현하며 빌레레 컬렉션의 가치를 드러내는 결정적인 요소다. 화이트 에나멜을 여러 번 덧칠해 고온의 오븐에 반복해서 구워내 단단한 다이얼을 만드는 이 기법은 전통을 그대로 담고 있는



포토그래피 박인주



데다 내구성을 높인다. 에나멜 페인팅 기법을 사용한 로마자 인덱스 역시 품격을 더한다. 날렵한 나뭇잎 모양의 시침과 분침은 독특한 곡선 형태로 가독성을 높여 시계 마니아들을 열광하게 하는 디테일이다. 까다로운 기계식 시계의 기능을 품은 디자인임에도 스위스 시계의 품격을 그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요소가 ‘우아함’이라는 기틀 안에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이렇듯 브랜드의 핵심적인 요소인 전통과 혁신을 모두 품은 빌레레 컬렉션은 블랑팡의 대표 제품이라 할 수 있다. 지난해 첫선을 보인 빌레레의 퍼페추얼 캘린더는 시계 예술에 대한 블랑팡의 집념과 정확성에 대한 가치, 진보한 기술을 모두 갖춘 기념비적인 작품이다. 8일간 스스로 작동할 수 있는 파워 리저브, 3백 79개의 부품으로 구성된 셀프와인딩 칼리버 5939A는 2100년까지 따로 조정할 필요가 없는 놀라운 캘린더 기능을 갖췄다. 4년마다 달라지는 2월의 길이, 매월 달라지는 마지막 날짜까지 모두 별도의 조작 없이 작동한다. 날짜가 달라지면 시계를 분해해서 조율해야 하는 기존 퍼페추얼 캘린더와는 달리 날짜와 요일, 월, 문페이스 인디케이션을 조정할 수 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뒷면에 위치한 언더-러그 코렉터(under-lug correctors)를 통해 이 모든 세심한 동작을 조율할 수 있기에 시계의 완성도는 더욱 높아진다. 이와 동시에 전통과 혁신을 한자리에 모은 블랑팡의 유산을 또 하나 품자면 까루셀(carrousel)을 들 수 있는데, 이는 투르비용과 메커니즘이 동일하고 모습과 기능도 비슷한 무브먼트지만 보다 클래식하고 고전적인 기술을 담은 부품이다. 투르비용은 시계 다이얼 위로 끊임없이 회전하며 중력의 영향을 줄여 오차를 최소화하는 역할을 한다. 투르비용은 배열에 단 하나의 기어 트레인으로 연결되어 회전을 멈출 가능성이 큰 데 비해, 까루셀은 2개의 기어 트레인으로 연결되어 있어 안정성이 보다 높다. 이 까루셀 기능은 블랑팡에서 특허를 내 현재 블랑팡에서만 사용하고 있기에 더욱 특별하다. 블랑팡은 빌레레 컬렉션에 까루셀 기능과 문페이스를 함께 담은 아이코닉한 제품을 선보인 바 있는데, 세계 최초로 플라이 까루셀 형태를 고안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 사실 문페이스 역시 1980년대 초반 블랑팡이 시계 다이얼에 다스금 사용하면서 주목받았다. 최근 남성용 여성 워치 모두 문페이스 워치가 트렌드라는 것을 생각하면 기계식 시계의 다양한 요소에 블랑팡의 혁신적인 시도가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시계, 블랑팡 1735 컬렉션

기계식 시계의 가치를 이야기할 때 복잡성은 피라미드의 가장 최상위를 차지하는 요소다. 블랑팡은 1991년, 창립 연도인 1735년에서 이름을 딴 블랑팡 1735 모델을 발표해, 현재까지도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오토매틱 와인딩 손목시계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1980년대 전지로 시간을 표시하는 쿼츠 워치의 등장으로 스위스 워치 시장은 직격탄을 맞았지만, 블랑팡은 문페이스부터 크로노그래프, 스플릿 크로노그래프, 투르비용, 미닛 리피터, 퍼페추얼 캘린더까지 여섯 가지 마스터피스를 한꺼번에 소개하며 기계식 시계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그리고 오직 태엽의 힘만으로 이 수많은 기능을 구현하는 기계식 시계의 가치를 한데 응집한 단 하나의 시계, 1735 컬렉션을 완성하게 된 것. 3명의 위치메이커가 6년에 걸쳐 이 위치를 완성했다. 이는 블랑팡이 도전과 혁신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1735년부터 지금까지 2백8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블랑팡은 기계식 시계의 가치와 예술성을 대중에게 전하고, 혁신을 거듭하며 그 유산을 이어나갔다. 피프티 패덤즈 다이버 워치의 명가로 자리 잡은 것은 물론, 기계적인 요소를 여성적인 아름다움으로 재해석해 선보이는 여성 컬렉션도 블랑팡을 더욱 빛나게 하는 요소다. 클래식한 빌레레 컬렉션으로 브랜드의 명성을 더욱 공고히 한 것은 물론 포켓 워치, 까루셀의 재현, 한정 수량만을 제작하며 하이엔드 워치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한 것 역시 블랑팡이다. 기계식 시계 역사의 대물보가 되어 혁신과 도전을 거듭할 블랑팡이 앞으로 선보일 새로운 위치에 대해 기대하게 되는 이유다. 문의 02-6905-3367 에디터 배민



the precious Moment



1백 년이 넘는 필기의 역사를 지켜온 몽블랑이 지난 6월 2015 밀라노 엑스포 글로벌 론칭 이벤트를 통해 현대적인 매력과 아티스트의 정신이 담긴 새로운 컬렉션을 선보였다. 세계적인 디자이너 마크 뉴슨의 손끝에서 탄생한 몽블랑의 최신작, 몽블랑 M을 공개한 것. 전략적인 행보로 눈길을 끄는 제롬 랑베르 CEO와 마크 뉴슨이 협업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었다. 유기적인 모던함과 클래식한 펜의 만남으로 젊은 세대에게 필기 문화의 가치를 전하고자 하는 몽블랑의 새로운 발걸음.

마크 뉴슨, 몽블랑을 디자인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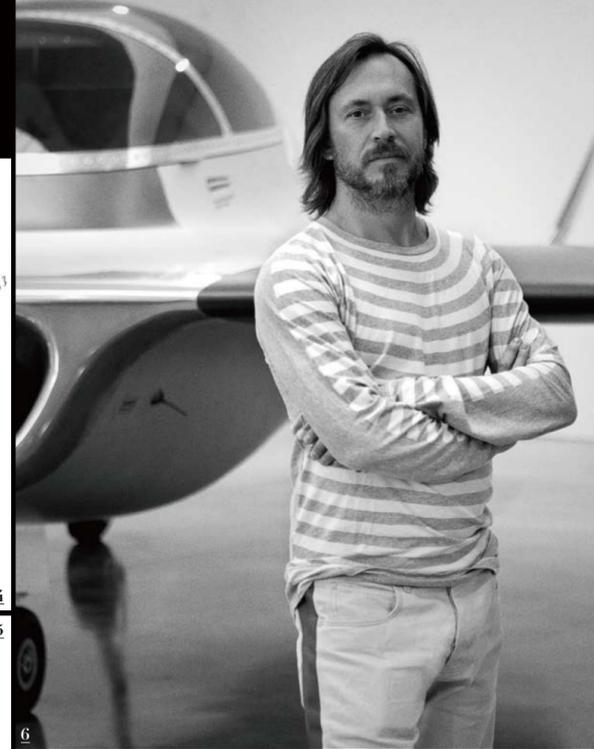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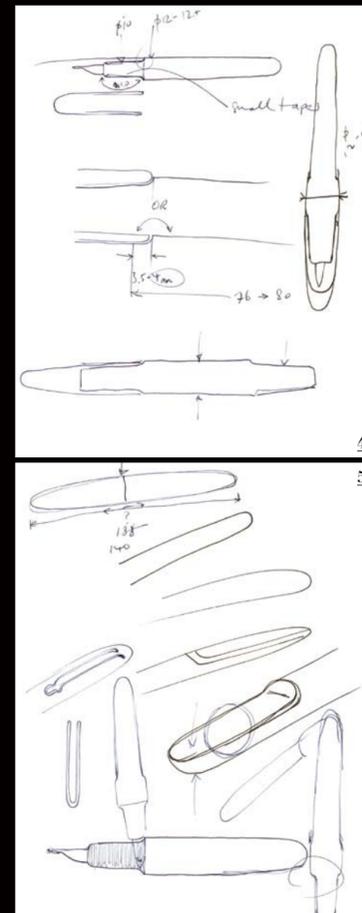
몽블랑(Montblanc)과 마크 뉴슨(Marc Newson). 한눈에 봐도 의외의 조합이다. 1990년 독일 통일 조약에 서명할 때 사용한 펜이자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과 미국의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 대문호 헤밍웨이가 즐겨 쓴 펜으로 알려진 몽블랑의 역사를 살펴보면 산업 디자이너 마크 뉴슨과의 조합은 생경한 느낌마저 든다. 하지만 두려움 없이 혁신적인 행보를 거듭하는 브랜드인 몽블랑은 지난 6월 밀라노에서 브랜드 역사상 최초로 디자인 콜라보레이션 작품인 몽블랑 M을 공개했다. 몽블랑 CEO 제롬 랑베르(Jérôme Lambert)가 주최한 이번 이벤트는 밀라노 시내를 가로질러 몽블랑 산이 보이는 다이아몬드 타워에서 그 베일을 벗었다. 지금 가장 영향력 있는 산업 디자이너 마크 뉴슨이 몽블랑의 펜을 디자인한 것.

최근 애플의 디자이너로 영입되며 애플 워치 탄생에 결정적 역할을 한 마크 뉴슨은 이미 유명한 산업 디자이너이지만, 애플과의 협업으로 다시금 주가를 올리고 있다. 평소 테크놀로지에 관심을 기울인 마크 뉴슨이 웨어러블 디자인의 시작으로 애플 위치를 선택했다는 소식에 전 세계 디자이너들이 촉각을 곤두세웠을 정도. 호주 시드니에서 태어나 유펜과 아시아를 오가며 유년기를 보낸 마크 뉴슨은 확장 시절 가구 디자인을 시작했는데, 이때 선보인 록히드 라운지(Lockheed Lounge) 체어는 지난 20년 동안 가구 경매에서 3회 연속 최고가를 갱신한 진기록을 갖고 있다. 가구는 물론 자전거, 자동차, 비행기, 요트, 건축까지 두각을 나타내고 클라이언트의 요청에 따라 조각 작품까지 선보인 마크 뉴슨은 최근 애플의 노트북을 디자인하며 시대의 아이콘으로 거듭났다. 동시대의 디자인 부흥을 이끌어가던 마크 뉴슨이 펜 역사에 한 획을 그은 몽블랑의 만년필을 디자인한다는 것은 획기적인 일이다. 1백 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클래식한 브랜드가 가장 현대적이고 모던한 디자이너와 손을 잡는다는 사실만으로도 많은 이들이 주목할 만한 사건인 것. 특히 전통적인 명사와 고전 작가, 세계적인 정치가와 다양한 이슈를 만들어온 몽블랑이 산업 디자이너와 함께한다는 것은 브랜드의 궤적에 신선함을 불어넣을 새바람이기도 하다. 그의 트레이드마크인 부드럽게 흐르는 유기적 형태와 몽블랑의 디자인 특색을 반영해 형태와 기능이 완벽한 균형을 이



루는 몽블랑 M은 실물을 보는 순간 저절로 탄성을 자아내게 한다. 몽블랑 펜의 형태를 이토록 유려하게 풀어낼 수 있다는 것, 몽블랑에서 지금까지 선보인 그 어떤 제품보다 심플하고 현대적이라는 점이 시선을 끈다. 메인 비주얼도 심플하고 캠페인을 위해 선보인 동영상도 심플하기 그지 없다. 자석을 사용해 캡과 배럴이 경쾌하게 닫히도록 고안한 데다, 스냅 메커니즘을 더해 부드러우면서도 확실하게 캡이 닫히도록 하는 독창적인 요소는 몽블랑과 마크 뉴슨이 만나 확실한 시너지를 창조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매끄러운 라인에 화이트 레진 소재의 몽블랑 스타 엠블럼을 초음파로 새겨 넣어 표면까지 미끄러지듯 이어진다. 플래티넘 도금한 클립과 캡은 연결선이 보이지 않도록 디자인해 디자이너 특유의 유기적인 디자인의 흐름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

행사장에 마련된 몽블랑의 역사적인 작품들과 나란히 신 마크 뉴슨의 몽블랑 M은 캡을 여닫을 때 경쾌하게 울려 퍼지는 클릭 소리를 통해 보다 현대적인 면모를 느낄 수 있게 했다. 몽블랑 봉우리 위로 노을이 변질 때 마크 뉴슨이 디자인한 실버 웨어의 글라스로 장식한 공간에서 칵테일 파티가 시작되었다. CEO 제롬 랑베르는 "베종의 역사적인 첫 디자인 파트너십인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몽블랑은 오늘날 가장 영향력 있는 디자이너로 꼽히는 마크 뉴슨과 손을 잡았습니다. 몽블랑 M은 그의 트레이드마크인 부드럽게 흐르는 순수한 유기적 형태인 바이오모र्फ즘(biomorphism, 생태형태주의)과 몽블랑의 상징적인 특색을 살린 새로운 필기구를 완성했습니다"라며 마크 뉴슨을 소개했다. 마크 뉴슨은 이 소개를 이어받아 "지도 몽블랑과 마찬가지로 심플한 기능과 감각적인 경험의 균형을 추구합니다. 깨끗하게 떨어지는 선이나 섬세하게 도금한 님, 매끄러운 표면과 루테튬을 입힌 앞부분의 촉감, 캡이 닫힐 때 나는 소리에 이르기까지, 몽블랑 M은 다양한 감각을 통해 만족스러운 느낌을 줄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했다.



혁신과 도전, 모던함으로 발걸음을 옮긴 몽블랑의 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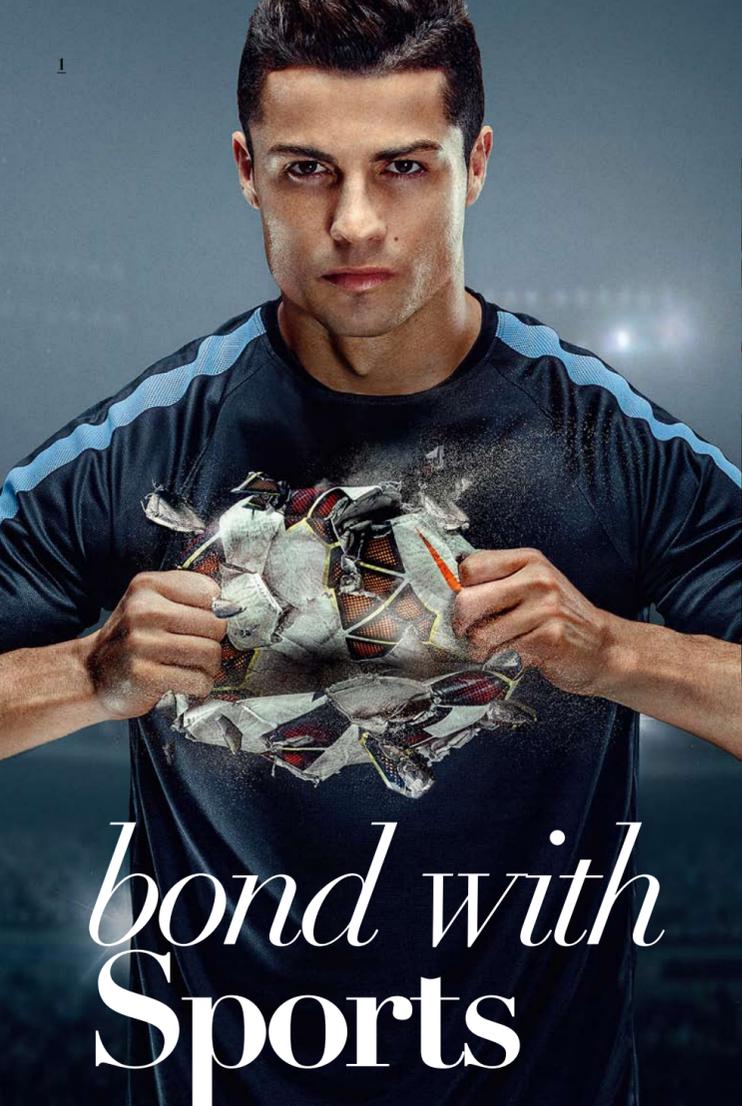
몽블랑은 지난 1백 년 동안 변치 않는 가치와 정교한 장인 정신의 전통을 계승한 역사적인 브랜드다. 스위스와 프랑스 경계에 위치한 몽블랑 봉우리를 모티브로 오랜 시간 동안 같은 자리를 지켜왔다. 시대를 초월한 디자인과 스타일은 '폼격'이라는 단어로 규정된다. 별 모양의 몽블랑 로고는 탁월함의 상징이 되어 필기구와 시계, 가죽 제품은 물론 액세서리와 향수, 선글라스까지 다양한 컬렉션으로 선보인다. 다이아몬드와 금으로 장식해 수억 원대를 호가하는 리미티드 에디션 펜을 선보이기도 하고, 대중적인 디자인의 몽블랑 펜에 사용되는 펜촉임에도 가장 뛰어난 필리터를 유지하기 위해 연구를 거듭한다. 합부르크에 위치한 몽블랑의 펜 공장을 방문해보면 위치 이상으로 정교한 작업, 장인 정신이 필요한 과정이라는 생각이 든다. 펜이라는 것을 패션 소품이 아닌, 쓰는 이의 품격을 대변하는 특별한 취향을 담은 도구로 자리매김시키기 위해 몽블랑은 수많은 이야기와 펜의 가치를 꾸준히 전파했다. 필기 문화는 물론 문화, 예술, 역사의 일부분을 책임져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기에 국제적인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몽블랑은 고급 필기구 수집가를 위한 고가의 리미티드 에디션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를 겨냥한 현대적인 감각의 제품과 여성을 위한 주얼리 세팅 만년필까지 다양한 제품을 선보였다.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몽블랑 M 역시 새로운 세대를 위한 혁신적인 디자인이다. 새로운 제품은 만년필, 롤러볼, 볼펜을 시작으로 터치스크린에 사용하는 스크린 라이터와 아티스트를 위한 제도용 아트 파인라이너까지 더해 네 가지 버전으로 선보이는 데이트 파인라이너는 몽블랑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제품이다. 이는 현대적인 필요성과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모두 담기 위해서다. 올해 제작하는 펜에는 필기 문화를 헌정 끌어올린 마크 뉴슨의 공로를 기리는 의미에서 님 부분에 'MN'을 새긴다. 디지털 시대에도 아날로그적인 요소에 열광하는 지금 세대에게 마크 뉴슨의 디자인에 영감을 적서 사용하는 펜을 더할 수 있는 브랜드는 오직 몽블랑 하나뿐이다. 애플에서 아이 워치가 등장해도, 마크 뉴슨이 첨단 그 무엇도 디자인한다 해도 몽블랑과 함께한 이 펜만큼 정성을 들이고 감성을 더한 제품은 찾아보기 힘들 것이고, 이 점이 바로 몽블랑의 특별함이다. '심플로 펜 컴퍼니'라는 이름에서 시작해 1908년 스탕달의 소설 제목과 동일한 이름을 붙인 '루즈 앤 누아(Rouge & Noir)' 펜을 출시해 당대 지식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몽블랑. 마크 뉴슨과 함께한 몽블랑 M의 새로운 디자인과 매력이 지금 새로운 세대에 필기 문화의 가치를 고스란히 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에디트 배미인/밀라노 현지 취재



1 9월 새롭게 선보이는 몽블랑 M 컬렉션. 몽블랑 스타 로고를 더욱 돋보이게 하는 디자인이다. 2 필기감이 다양한 펜촉과 애플 다른 컬러의 인크는 몽블랑의 고유한 유산이다. 3 아름다운 필체를 완성하기 위한 님은 장인들의 정교한 손길로 완성된다. 4 5 몽블랑 M을 위한 마크 뉴슨의 스케치. 6 몽블랑의 새로운 인연을 맺은 마크 뉴슨. 7 밀라노 시내의 몽블랑 봉우리가 보이는 다이아몬드 타워에서 개최된 행사. 8 세계적인 셀럽과 함께한 행사에 참석해 몽블랑 펜을 이용해 퍼포먼스를 펼쳤다. 9 (왼쪽부터) 이번 행사를 주최한 몽블랑 CEO 제롬 랑베르, 밀라노 패션계를 대표하는 카를라 소체니, 몽블랑 M을 디자인한 마크 뉴슨. 10 올해 선보이는 몽블랑 M 제품의 남색은 마크 뉴슨을 상징하는 MN 심플이 새겨져 있어 더욱 특별하다.





bond with Sports

태그호이어의 시계가 모터 레이싱 서킷에 등장하며 스포츠와 손을 잡은 지 반세기가 넘었다. 그리고 지금, 태그호이어는 F1, 요트, 축구, 스키, 마라톤, 서핑, 농구, 골프, 익스트림 스포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포츠 종목, 그리고 선수들과 인연을 맺으며 스포츠 워치 명가로서의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다.

스포츠와 상통하는 태그호이어의 정신, '어떤 어려움에도 굴복하지 않는다'

1860년 스위스 샹티미에에서 창립자 에드워드 호이어가 창립한 태그호이어는 스위스 세계 산업의 선두 주자로서 임무를 다해왔다. 아방가르드 정신, 스포티함과 우아함을 브랜드의 DNA로 삼고, 오차 없는 정확한 시계를 만들겠다는 꿈을 실현하기 위해 지치지 않는 도전 정신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연구한 결과 크로노그래프와 스포츠 시계 영역에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었던 것. 카리스마 넘치는 인물들을 홍보대사로 선정하고 각종 스포츠 팀과 지속적으로 파트너십을 맺었다. 이러한 브랜드의 철학과 가치를 널리 알리는 태그호이어는 세계 최대 시계&주얼리 박람회 2015 바젤월드 이후부터 4개의 유니버스, 4개의 메시지라는 주제로 브랜드를 소개하고 있다. 여기서 4개의 유니버스는 스포츠, 예술, 라이프스타일, 헤리티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특히 스포츠 부문은 최근 광고 캠페인의 주제로 삼고 있는 '어떤 어려움에도 굴복하지 않는다(Don't Crack Under Pressure)'와도 일맥상통한다. '스포츠에서 연습이란 육체보다 정신을 단련하는 것'이라는 사실에 착안해 스포츠 선수들의 강인한 정신,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내고자 하는 의지, 지치지 않는 에너지를 태그호이어에 투영해 '혁신'이라는 브랜드 철학을 자연스레 녹여냈다. '어떤 어려움에도 굴복하지 않는다'를 광고 캠페인 주제로 처음 적용한 1990년에는 F1 레이싱 드라이버로서 남미의 국민적 영웅이 된 아이톤 세나를 모델로 기용했는데, 이번에는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스포츠 스타와 여러 셀러브리티들이 홍보대사로 출격해 눈길을 끈다. 세계 최고로 통하는 축구 선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테니스 선수 마리아 샤라포바를 비롯해 거침없는 돌발 행동과 매력으로 인스타그램에서 1천8백만 명이나 되는 팔로어를 거느린 세계적인 모델이자 패션ista 카라 델레빈, 비트의 황제이자 일렉트로닉의 신이라 불리는 DJ 데이비드 게타 등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늘 도전하는 태그호이어의 이미지를 대변하고 있다. 이들 홍보대사 외에도 맥라렌 메르세데스 벤츠 팀, 포뮬러 E 대회, 모나코자동차협회(Automobile Club de Monaco) 등의 파트너들도 이 광고 캠페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스포츠 스타와 특별한 워치 브랜드와의 만남

태그호이어를 언급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스포츠 분야와의 밀접한 관계다. 정밀하고 정확한 시간 측정 기술력으로 크로노그래프와 스톱워치 위치를 중점을 둔 전문 크로노그래프 매뉴팩처로 거듭난 이후 F1, 요트, 축구, 마라톤 등 100분의 1초까지 다루는 스포츠 분야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자리매김해온 것. 1920년대에는 올림픽 공식 시계, 1992년부터는 F1 카 레이싱 공식 시계, 최근에는 독일 프로 축구 리그 분데스리가 공식 시계로 채택되고, 세계 서핑 리그와 파트너십을 체결한 것 등이 태그호이어와 스포츠맨십이 강력한 알레이션십을 갖고 있다는 증거다. 최근에는 여러 분야의 스포츠 선수와 종목과 인연을 맺으며 스포츠 워치 명가로서의 입지를 더욱 견고히 하고 있다. 세계적인 공항과 면세점, 스포츠 경기장의 벽면에 태그호이어와 스포츠 선수의 스폰서십을 알리는 배너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스포츠에 관심이 없는 이들이라도 이름만 들으면 알 만한 스타가 모두 태그호이어의 앰배서더로 활동하고 있다. 태그호이어가 내세우는 스포츠, 예술, 라이프스타일, 헤리티지 등 4개의 유니버스 가운데 스포츠 카테고리 가장 돋보이는 것도 이러한 연유에서다. 태그호이어와 스포츠와의 끈끈한 상관관계를 논할 때마다 늘 첫 번째로 다루는 분야는 모터 레이싱이다. 20세기 초, 모터 레이싱에 참가하는 스포츠카를 위해 크로노그래프 대시보드를 개발하면서부터 시작된 인연은 유명 모터 레이싱 팀이나 랠리를 후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태그호이어가 최근 모터 레이싱 다음으로 관심을 쏟는 스포츠 분야는 바로 축구다. 지난해 세계적인 축구 선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Cristiano Ronaldo)를 브랜드의 홍보대사로 임명한 이후, 축구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보이고 있는 것. 그도 그럴 것이 매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활약을 보여준 축구 선수에게 수여하는 FIFA 발롱도르(FIFA Ballon D'OR)를 3회나 수상한 축구계 슈퍼스타와의 광고 캠페인 촬영은 전 세계 시계와 축구 마니아의 주목을 끌기에 충분했으며, 호날두를 통해 태그호이어라는 브랜드 이름

과 정신을 보다 널리 알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호날두를 앰배서더로 영입할 당시 태그호이어의 CEO였던 스테판 랭거는 "그는 태그호이어처럼 어느 누구보다 자기 자신에게 완벽함을 추구한다. 그는 스스로 동기를 부여하고 훈련하며 한계를 뛰어넘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이는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이자 전통의 일부다"라고 밝힌 바 있다. 태그호이어의 모터이자 광고 캠페인의 슬로건인 '어떤 어려움에도 굴복하지 않는다'라는 주제에 맞춰 호날두가 새롭게 촬영하고 축구 개막 시즌에 맞춰 지난 8월 공개한 광고 캠페인은 그의 강인한 정신과 체력이 고스란히 배어남다는 평이다. 또 태그호이어는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와 더불어 명실공히 유럽을 대표하는 독일 프로 축구 리그 분데스리가와 3년간의 파트너십을 체결, 축구와의 인연을 더욱 돈독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분데스리가 최초의 공식 타임키퍼이기에 그의 의미는 더욱 남다르다 할 수 있다.

태그호이어는 세계 최고의 서퍼로 통하는 카이 레니(Kai Lenny)를 올해 새로운 홍보대사로 발탁하는 것을 계기로 젊은 세대가 열광하는 스포츠인 서핑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서핑, 윈드 서핑, 카이트 서핑에 천부적 재능을 보이는 미국 출신의 카이 레니는 전 세계가 주목한 스탠드업 패들링 서핑에서 무려 여섯 번이나 월드 챔피언 타이틀을 거머쥔 인물. 지난 7월, 그는 태그호이어와 DFS의 후원을 받아 어린이들과 서핑을 즐기는 자선 행사를 진행했는데, 이는 바다와 환경에 대한 어린이들의 이해를 넓히고 안전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것이었다. 이 행사를 통해 모금한 1만달러의 기부금은 하와이군도 어린이를 위한 재단인 나카마 카이(Nā Kama Kai, 바다의 어린이)에 기부되었다. 카이 레니가 '어떤 어려움에도 굴복하지 않는다'는 태그호이어의 강렬한 캐치프레이저를 표현할 인물로 선정된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언제나 진지하게 일하지만 너무 심각하지 않게 즐기고 포기하지 않으며 마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매일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그의 모토가 바로 그것이다.



서핑계에 카이 레니가 있다면 농구계에는 제러미 린(Jeremy Lin)이 있다. NBA LA 레이커스 팀에서 활동 중인 최초의 대만계 미국인 농구 선구인 그는 훌륭한 성격으로 하버드에서 선수 생활을 마쳤음에도 2010년 NBA 드래프트 지명에 실패했다. 그러나 2년 후, 그는 혜성처럼 다시 등장해 전 세계 농구 팬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다. 비관론자의 악몽을 비롯해 온갖 악조건에도 포기하지 않았던 그의 피땀과 열정이 거둔 달달한 결실을 지켜본 태그호이어는 제러미 린을 브랜드의 앰배서더로 지명했다. 떠오르는 골프 신예 제시카 코다(Jessica Korda) 역시 브랜드의 홍보대사로 선정되면서, 태그호이어는 골프계까지 관심 영역을 확장시켰다. 올해 22세인 그녀는 유쾌하고 외향적인 성격으로 자신이 플레이하는 모습을 SNS에 올려 전 세계 팬과 소통하는 것을 즐기는 재기 발랄한 여성이자 LPGA 투어에서 3승을 거둔 라이징 스타. 앞으로 그녀가 펼쳐갈 젊은이들과 태그호이어 사이의 메신저 역할도 기대해볼 만하다. 스포츠를 향한 태그호이어의 무한한 애정은 어디까지일까. 타 스포츠에 비해 대중적이라고 할 수 없는 익스트림 스포츠에도 태그호이어의 아낌없는 지원은 계속되었다. 1970년대 말,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는 이들이 만든 단체인 라 누드 라 글리스(La Nuit de la Glisse)를 후원, 익스트림 스포츠 영화로 유명한 테리에 도나르(Thierry Donard) 감독의 영상을 상영하는 데 큰 버팀목 역할을 한 것이다. 깎아지른 산의 경사면, 수평선을 덮고 거대한 파리를 집어삼킬 듯한 거대한 파도 등 길들지 않는 자연의 중심에서 최근에 등장한 익스트림 스포츠와 기존의 전통적 스포츠 종목이 어떻게 진화해왔는지 살펴볼 수 있는 이번 영화는 2015년 12월 10일부터 13일까지 유럽 전역 영화관에서 상영될 예정이며, 올해 11월 27일 파리 그랑 렉스(Grand Rex)에서 첫 시사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외에도 태그호이어는 작년에는 뉴욕과 시카고 마라톤 대회를, 올해는 베를린과 파리 마라톤 대회를 후원하고, 최근 세계 서핑 리그와 파트너십을 체결해 올해부터 서핑과 관련한 후원 활동도 활발히 펼칠 예정이다. 이처럼 다양한 스포츠 선수, 종목과 인연을 맺으며 스포츠와 태그호이어는 서로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가 됐다. 한계를 뛰어넘고 어떠한 압박이나 악조건에도 굴복하지 않는다는 공통분모를 지닌 스포츠와 태그호이어가 전하는 매력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한 듯하다. 문의 02-776-9018 에디터 배미진



1 브라셀라에 위치한 스튜디오에서 촬영한 호날두의 새로운 광고 비주얼. 2 3억대 최초로 독일 프로 축구 리그 분데스리가의 공식 타임키퍼로 선정된 태그호이어. 4 세 번이나 발롱도르를 수상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를 기념하는 시계 포스터 1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스페셜 에디션. 5 브랜드를 대표하는 카라 델레빈 1887 크로노그래프 43mm 세라믹 베젤. 6 7 2015년 태그호이어의 새로운 홍보대사로 발탁된 미국인 서핑 선수 카이 레니. 8 태그호이어의 홍보대사로 선정된, 떠오르는 골프 신예 제시카 코다. 9 익스트림 스포츠 단체인 라 누드 라 글리스. 태그호이어가 후원하며 올해 12월 상영 예정이다.

Pomellato 2015 Carnet Selection
 우아하면서도 창조적인, 이탈리아 밀라노의 예술 혼을 고스란히 담은 포멜라토의 하이 주얼리 컬렉션. (왼쪽부터) 로즈 골드에 브릴리언트와 로즈 컷 브라운 다이아몬드 7,867석을 세팅한 핑크 골드 다이아몬드 링, 화이트 토파즈를 세팅한 타부 화이트 토파즈 링, 정교한 돌 형태로 나뭇잎 모양을 이루고 세팅한 이리베스쿠 다이아몬드 링, 지중해의 반짝임에서 영감을 받아 칼세오니 스톤을 불규칙하게 세팅한 카프리 칼세오니 링, 그린 컬러의 프레스오라이트를 세팅한 핑크 프레스오라이트 링, 로즈 골드 밴드에 블랙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사비아 블랙 다이아몬드 링, 사비아 화이트 다이아몬드 링 모두 **포멜라토**.



dream Maker

세계를 매혹시키는 이탈리아 스타일, 밀라노에서 완성하는 영롱한 컬러로 가득한 파인 주얼리 하우스 포멜라토(Pomellato)의 환상적인 아름다움.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Nudo Diamond Collection
 포멜라토의 아이코닉 제품인 부드러운 누도(Nudo) 컬렉션과 바다에 불인, 작은 유색석을 세팅한 마마 노 마마(Mama Non Mama) 컬렉션. (왼쪽) 블루 토파즈, 핑크 에머사이드, 레몬 퀴츠 스톤을 다이아몬드 세팅된 화이트 골드 밴드에 매치한 누도 컬렉션. (7분데 위) 로즈 골드 밴드에 그린 컬러 프레스오라이트, 호박색의 마데이라, 레몬 퀴츠 원석을 세팅한 누도 컬렉션. (오른쪽) 이리베스쿠 칼라리의 로즈 드 프랑스, 화이트 토파즈, 밝은 바이올렛 컬러의 에머사이드를 세팅한 누도 컬렉션. 다양한 컬러와 사이즈로 선보여 레이아웃하는 즐거움을 선사한다. 바다에 흩어져 있는 마마 노 마마 컬렉션은 이룰 기지 칼라리의 카보숑 컷 유색석을 세팅해 미스 매치할 수 있다. 모두 **포멜라토**. 문의 02-3213-2260 에드워드 배미진



the italian Touch

좋은 소재는 물론, 브랜드 특유의 염색 기법과 장인 정신이 담긴 완벽한 테일러링까지. 옷 잘 입는 이탈리아 남성들 비롯해 세계 곳곳에 '도버(Dover)' 재킷 열풍을 일으킨 볼리올리(Boglioli) 이야기다.



볼리올리, 테일러링을 말한다

수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항상 빠지지 않는 단어가 있다면 '테일러링'이다. 그만큼 테일러링은 수트의 기본이자 정석이라 할 수 있다. 재킷을 입었을 때 몸을 감싸듯 편안하고 완벽한 핏을 자랑한다면 뛰어난 테일러링 실력이 발휘된 옷임에 분명하다. 이렇게 완벽한 테일러링을 자랑하며 남성들의 위시 리스트에 오른 브랜드가 바로 볼리올리다.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신세계 백화점 본점에 아시아 최초 단독 매장을 선보인 볼리올리는 편하지만 클래식한 도버 재킷으로 유명세를 탔다. 볼리올리는 1900년대 이탈리아 브레시아 감바라 지방의 볼리올리 가문이 탄생시킨 브랜드다. 초창기에는 남성 테일러링과 원단을 제조하는 작은 가게에서 시작했다. 그 뒤 점차 품질 높은 원단과 정교한 테일러링으로 명성을 얻기 시작해 브랜드의 규모를 확대한 케이스. 볼리올리는 1백 년간 쌓아온 노하우로 수준 높은 공정을 거치기로 유명하다. 섬유를 여러 번 테스트한 후에 원단을 재단하며, 제조하기 까다로운 울과 캐시미어 소재도 브랜드 특유의 공법에 따라 부드러운 광택을 강조한 수트로 다시 태어난다. 가먼트 다잉(garment dyeing)이라 불리는 염색 기법이 볼리올리 기술의 핵심으로, 염색한 소재로 옷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완성된 옷을 염색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기술로 완성한 볼리올리의 재킷은 자연스럽게 워싱된 효과를 줘 디자인 면에서 특별함을 더한다. 이 기술을 사용한 대표적인 모델이 '도버' 재킷이다. 브랜드의 시그니처 아이템이라 할 수 있는 도버 재킷은 길이가 짧아 슬림한 인상을 주는 동시에 안감이 따로 없어 매우 가볍다. 요즘같이 정통적인 클래식한보다는 캐주얼한 멋을 추구하는 트렌드에 딱 맞는 재킷으로, 새로운 재킷에 목말라 있는 비즈니스맨에게 신선하게 다가오지 않을까.

남자들의 워너비 재킷, 볼리올리

볼리올리의 재킷은 클래식하면서도 이탈리아 특유의 컬러가 느껴져 패셔너블한 밀라노 남성들 사이에서도 상당한 인기를 끈다. 거기에 부드러운 착용감까지 갖춰 재킷을 불편하게만 생각했던 이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 볼리올리의 장점이다. 지난주 볼리올리의 단독 매장이 신세계백화점 본점에서는 2015 A/W 컬렉션 제품을 새롭게 선보였다. 그중에서도 실루엣이 모던한 재킷이 눈에 띄었는데, 기장은 더욱 짧아지고 어깨선은 자로 잰 듯 정확하게 떨어지는 핏이 공통적이었다. 팬츠 역시 허리선을 기존보다 높여 다리가 길어 보이는 효과를 주는 디자인이 특징이다. 특히 이번 컬렉션의 컬러와 디테일에는 1960년대와 1970년대의 밀라노 부르주아의 모습을 반영했다. 차분한 그레이와 따뜻한 캐멀 컬러가 주를 이루는 의상들은 남성은 물론 여성의 마음을 흔들기에 충분해 보였다. 옷이 그 사람을 대변해준다는 말처럼 볼리올리 재킷을 입는다면 '재킷을 좋아하는 감각 있는 남자'로 거듭날 수 있다. 최근 한 매체에서는 같은 저하철역 근처에 위치한 두 회사의 출근길 모습에서 드러난 상반되는 스타일에 대해 다뤘다. 일반적인 오피스로 향하는 사람들의 스타일은 딱딱해 보이는 정장이 강세를 보인 반면, 패션 회사가 위치한 다른 한쪽은 컬러풀한 수트가 주를 이룬 것. 블랙 정장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옷 스타일로 그 사람의 관심사와 감각, 직업까지 엿볼 수 있다는 얘기. 실제로 브랜드 관계자는 30, 40대 전문직 남성들이 도버 재킷을 주로 찾는다고 전했다. 시간이 지나도 소재와 디자인, 착용감까지 뒤처지지 않는 재킷을 찾고 있다면 지금 당장 매장으로 향하자. 직접 입어봐야 진정한 진가를 느낄 수 있는 볼리올리는 신세계백화점 본점에서 만날 수 있으며, 9월 말 강남점을 오픈한다. 문의 02-310-1685에드워드 배미진

3. 이탈리아의 워너비 재킷, 볼리올리. 4. 볼리올리, 테일러링을 말한다. 5. 볼리올리, 테일러링을 말한다.



1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위치한 볼리올리 매장. 2 볼리올리의 이번 시즌 메인 아이템인 다양한 도버 재킷을 볼 수 있는 매장 모습. 3, 4 실루엣과 핏이 더욱 모던해진 볼리올리의 2015 A/W 컬렉션.



Hound's Tooth Dover Jacket

베이지 컬러의 하운즈 투스 체크 도버 재킷. 차분한 느낌을 주는 모직 소재로 제작해 캐주얼하면서도 클래식한 품위를 유지해준다. 1백25만원.



고디바를 대표하는 골드 컬렉션(Gold Collection). 정교한 몰딩 기법으로 만든 골드 초콜릿과 카바추어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까레로 구성되어 있다. 가격 인화로 더욱 합리적인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25개입 6만7천원.



장인이 만든 수제 초콜릿 고디바

present for Swe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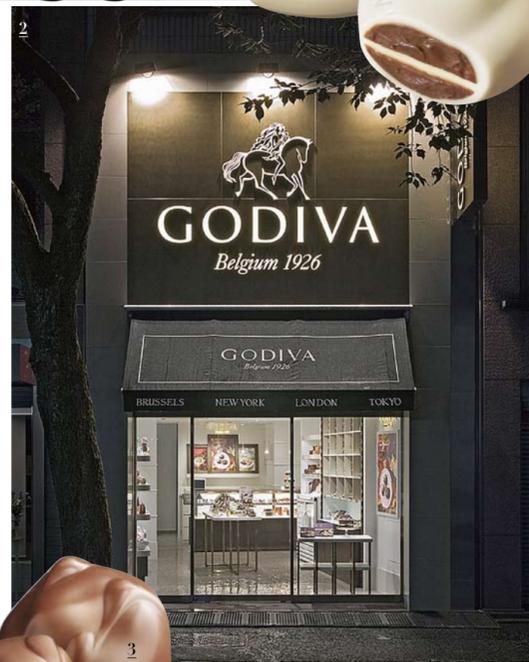
어떤 맛이 담겨 있을지 기대하게 되는 벨기에 수제 초콜릿 명가 고디바(GODIVA). 정성과 품격을 전하는 고디바 초콜릿 기프트로 추석을 맞이하는 것은 어떨까. 최근 가격 인화로 1만원대부터 10만원대까지 다양한 선택이 가능해져 더욱 매력적이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추석, 부담 없는 가격으로 즐기는 초콜릿

벨기에 하면 떠오르는 건 초콜릿. 초콜릿 하면 떠오르는 '고디바(GODIVA)'는 마치 초콜릿의 고유명사 같다. 입안에서 부드럽게 녹아내리는 달콤한 맛에 한입 먹으면 빠져나올 수 없는 고디바의 초콜릿은 외곽, 맥주와 함께 벨기에의 3대 명물로 꼽힌다. 고디바는 최근 추석 선물로 제격인 다양한 컬렉션을 선보였는데, 9월 18일부터 국내 고디바 고객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베스트셀러 제품의 가격을 인하여 부담을 좀 더 낮춘 고디바 초콜릿을 만나볼 수 있다. 이번에 가격을 인하하기로 결정한 베스트셀러 아이템 '골드 컬렉션', '시그니처 트뤼프 컬렉션', '까레 어썬트먼트'는 1만원대부터 10만원대까지 다양한 가격대와 고급스러운 패키지로 선보여 기프트용 초콜릿으로 많은 사랑을 받는 아이템이다. 골드 컬렉션은 고디바의 가장 대표적인 컬렉션인데, 정교한 몰딩 기법으로 만든 골드 초콜릿과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까레로 구성되어 있다. 까레 어썬트먼트는 프랑스어로 사각형을 뜻하는 '까레' 초콜릿 패키지에 심플하게 디자인한 오리지널 판형 초콜릿으로 구성되어 있다. 깔끔하고 슬립하게 포장한 까레는 카카오 함량이 다른 네 종류의 초콜릿으로 이루어져 카카오 농도에 따라 달라지는 초콜릿 본연의 순수한 맛을 경험할 수 있다.

고디바, 최상급 카카오로 만든 달콤함

수많은 브랜드 중에서도 여전히 세계인의 사랑을 받으며 초콜릿계의 왕좌에 앉은 고디바. 그 이유는 무엇일까. 고디바는 적도 부근에서 생산한 우수한 카카오 원두와 그리스산 아몬드, 이탈리아 피에몬테 지방의 개암과 자연 건조한 과일 등 최상의 원료를 조화롭게 사용한 초콜릿으로 명실공히 최고의 자리에 우뚝 섰다. 특히 전 세계의 고디바 제조 공장은 창립자 조셉 드립스의 전통적인 레시피에 따라 특유의 코팅과 몰딩 기술로 초콜릿을 생산해 어느 지역에서나 똑같은 맛을 유지한다. 또 다른 국가와 달리 벨기에에는 순수 100% 카카오 버터만을 사용해야만 초콜릿으로 인정하기에 최상의 품질을 보증하는 초콜릿이 탄생할 수밖에 없었던 것. 풍부한 맛과 고급스러운 패키지가 특징인 고디바의 골드 컬렉션 역시 가격을 인하해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인다. 기존보다 부담 없는 가격에 프리미엄 초콜릿을 맛볼 수 있는 기회인 추석, 사랑하는 이들에게 달콤한 행복을 선물해보자. 문의 080-827-7700 에디터 배미진, 김자혜



1 밀크 초콜릿과 헤이즐넛 알갱이로 가득 찬 하트 모양의 화이트 초콜릿 리프 블랑. 2 고디바는 벨기에 브란도로 뉴욕과 런던, 서울 등 전세계 대도시에서 매장을 운영한다. 서울에는 가로수길과 광화문, 백화점 등 전국 24개 매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3 고디바의 베스트셀러인, 화이트엔으로 채운 밀크 초콜릿 모자이크 마카미아.

a tea Story

향긋한 티와 달콤한 디저트면 몸에 쌓여 있던 스트레스와 긴장을 풀어주기에 충분하다. 뜨거운 여름이 지나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어느 가을날 오후, 따뜻한 차 한잔이 그려내는 여유로운 풍경.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왼쪽 아래부터 시계 방향으로) 스낵한 감성을 담은 화이트 컬러 찻잔 4만5천원, 받침 3만5천원 모두 TWL by 갤러리 아 기프트 세트. 진한 카키오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수제 초콜릿이 들어 있는 제스처 기프트 박스 2만4천원 라베중 뒤 쇼콜라. 부드럽고 섬세한 데이지 패턴이 낭만적인 티 타임을 완성해주는 데이지 티스타토의 티포트 라지 25만 원, 같은 라인의 티 컵과 받침 12만 원 모두 웨지우드. 자동차 레이싱에서 영감을 얻은 엘리 24 라인의 텀블러 각 10만 원대, 티포트 1백만 원대 모두 에르메스. 깔끔하고 여성스러운 레이스 디자인으로 로얄 코펜하겐의 베스트셀러 중 하나인 화이트 하프 레이스 티포트 24만 원 로얄 코펜하겐. 시원한 아이스티와 밀크티에도 즐길 수 있는 1사리즈 중 실론 2 만원 달마. 달콤한 과일 향 티를 즐길 수 있는 플럼 & 시슬 2만 원대 로얄 코펜하겐. 온과 다즐링을 블렌딩해 부드러운 맛을 느낄 수 있는 파리지엔 블랙파스트 티 4만5천원 메오도르. 파스타치오. 초콜릿 마구통 각 3천 원대 라 뒤레. 단아한 디자인과 로얄 코펜하겐의 시그니처 컬러인 블루가 아우라진 프린세스 티 컵과 받침 11만5천원 로얄 코펜 하겐. 심플한 디자인이 매력적인 동시에 튼튼하고 견고할까지 갖춘 퓨리탄 컵과 받침 1만9천원 존 루이스. 바닐라, 피 스타치오, 마리 앙투아넷 마카롱 각 3천 원대 라 뒤레. 청량한 그린과 블루 컬러의 스몰 오벌 플라이트 각 1만 원대, 엘리 24 라인의 텀블러 10만 원대 모두 에르메스. 에디터 배미진, 김자혜

TWL 02-3449-4523 라베중 뒤 쇼콜라 070-4322-3530 웨지우드 02-3446-8330 에르메스 02-542-6622 달마 02-323-5232 로얄 코펜하겐 02-749-2002 로얄 코펜하겐 티하우스 031-709-9248 메오도르 070-7743-1190 존 루이스 02-310-5379 라 뒤레 02-3479-1689



장소: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21-16-4700

SPECIAL EVENT COUPON

<스타일 조선타일보>와 벨기에 핸드메이드 초콜릿 고디바가 함께하는 특별한 이벤트

본 쿠폰을 소지하고 고디바 매장을 방문하는 <스타일 조선타일보> 독자분들께 장인이 만든 고급 수제 초콜릿 고디바의 품격을 느낄 수 있는 까레 초콜릿 테이스팅 기회를 선사합니다.

기간 2015년 9월 18일~24일
 내용 까레 밀크, 까레 디크 중 1종(날개) * 해당 매장 고디바 가로수길점(02-517-3979), 광화문점(02-736-7717)
 * 1인 1회 한정 수량이며 중복 증정하지 않습니다. * 조기 소진될 수 있습니다.





Sleep innovations

잘 알다시피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다. '질 좋은 잠은 건강에 필수 불가결할 뿐만 아니라 두뇌의 생산적인 활동을 도와주는 삶의 축복이다. 낮에 새로 습득한 것을 강화하면서 쓸모 없는 정보와 신경세포의 활동으로 생성된 독성 물질을 제거해주는 '수면 메커니즘이 작용하는 것이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삶의 질에 주안점을 두면서 숙면을 위한 '수면 공학'에 점점 더 많은 관심을 쏟는 것도 당연하다. 1세기가 넘는 찬란한 역사 속에 잠의 혁신을 거듭해온 시몬스. '말잠을 선사한다는' 6성급 호텔 침대의 대명사이기도 한 이 브랜드가 추구하는 '수면 공학'에 주목해보자.



1 145년의 이유 있는 역사, 시몬스의 빛나는 자부심
 1870년 미국 위스콘신 주 케노샤의 작은 마을에서 탄생한 시몬스(SIMMONS). 145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쳐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지금까지도 '침대의 대명사'로 통하는 유서 깊은 브랜드다. 타이타닉호 같은 초호화 여객선에 사용할 정도로 시몬스 매트리스는 초기부터 명품 대접을 특별히 받았고, 우수 저명인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20세기 최고의 발명가 토머스 에디슨은 하루 3~4시간만 자면서 수면의 질을 증진한 시몬스 예산론자였으며, '철의 여인' 마거릿 대처를 비롯해 헨리 포드, 엘리너 루스벨트 같은 정·재계 리더들도 시몬스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드러냈다. 오늘날 시몬스는 글로벌 특급 호텔의 인력한 수면 환경을 책임지는 '신뢰받는 침대 브랜드'로도 명성을 떨치고 있다. 포시즌스, 힐튼, 인터컨티넨탈, 만다린 오리엔탈, 신라, 반얀트리 등 세계적으로 내로라하는 호텔들을 비롯해 웨스턴, W, 세인트레지스 등 스타우드 계열 호텔들이 시몬스를 채택하고 있다. 이처럼 시몬스가 세기를 넘어 프리미엄 브랜드로 꾸준히 인정받아온 비결은 무엇일까. 그 해답은 시몬스의 창립자 켈몬 시몬스(Zalmon G. Simmons)가 평생토록 추구해온 '침대가 아닌 인생을 만든다'라는 철학, 그리고 완벽한 편안함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원칙을 바탕으로 추구해온 혁신에 뿌리를 두고 있다. 1876년, 시몬스는 침대 산업 역사에 길이 남을 획을 그으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당당히 알렸다. 스프링 매트리스의 대량생산을 시작하면서 프리미엄 매트리스의 대중화를 이끌어낸 것이다. 그러나 이는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빛나는 전통을 굳건히 유지하되 과거에 머물지 않고 부단히 진화를 추구해온 시몬스의 혁신 여정은 20세기 초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좋은 침대에는 인생을 바꾸는 힘이 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1925년, 시몬스 2세는 침대 산업의 패러다임을 다시 한 번 바꾸는 혁신을 일으켰다. 시몬스의 토대가 된 '포켓스프링(Pocket Spring)'을 개발해 특허를 취득한 것이다. 향아리 형태의 포켓스프링 하나하나를 개별 포장함으로써 옆 사람의 뒤척임이 느껴지지 않도록 고안한 시몬스의 침대 메커니즘은 당시 업계를 뒤흔든 커다란 혁신이었다. 현대의 공학을 통해 '흔들리지 않는 궁극의 편안함'을 제공하겠다는 원칙에 충실한 포켓스프링이 시몬스의 수면 메커니즘을 상징하는 하나의 아이콘이 된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 후로도 포켓스프링은 더 완벽한 수면 미학을 위한 혁신의 행보를 계속하지 않았다. 인체의 모든 부분을 완벽하게 지지하는 5종의 라인업을 구축하고 안정감과 지지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한 단계 더 보완한 포켓스프링 기술을 구현하는 등 끊임없는 혁신을 추구해왔다. 또 시몬스의 차별화된 수면 메커니즘은 단지 포켓스프링 기술 노하우로만 완성되지 않는다. 세계 최고 수준의 철강 기술을 보유한 포스코에서 공급받는 스프링 강선, 이탈리아 이탈리아로(Talferro)에서 수입하는 특수 포켓스프링 커버 등은 기본에 충실하지는 시몬스의 원칙을 뒷받침해주는 든직한 요소들이다. 시몬스는 국가 공인 친환경 인증 매트리스를 보다 보완한 브랜드이기도 하다. 시몬스의 매트리스라면 국가가 공인하는 '친환경 인증'을 받아야만 시장에 선보일 수 있다. 그게 다가 아니다. 무려 10만 번 이상의 탄성 테스트를 거친 뒤 국가 공인 기준보다 엄격한 풀러 테스트로 내구성을 다시 한 번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시몬스가 한국 시장에 진출한 것은 1992년. 20년이 훌쩍 넘는 세월 동안 브랜드 고유의 품질 철학을 고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지화를 꾀했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시몬스의 모든 제품은 한국인의 체형, 수면 패턴, 기후, 라이프스타일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자체 생산 시스템을 통해 탄생한다. 이 과정에는 시몬스 장인들의 수많은 손길이 닿는데, 모든 공정의 마무리는 제작자의 수작업을 거쳐 점검하며 완성된 제품에는 최종 생산자의 이름이 적힌 라벨을 붙인다. 장인 정신에 입각해 자신의 이름을 당당히 내걸 수 있을 만큼 완벽을 도모하는 것이다.

세련된 미니멀리즘, 트렌드를 반영하되 정체성을 잃지 않는 디자인

시몬스를 아는 이라면 흔히 우아하고 깔끔한 디자인을 연상한다. 트렌드를 반영하기는 하지만 브랜드 고유의 느낌을 잃지 않는 특유의 디자인 정체성이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통일된 이미지는 '본질에 가장 가까운 디자인을 추구한다'는 시몬스 매트리스의 디자인 철학 덕분일 것이다. 인생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수면을 통해 가장 아름다운 휴식을 선사할 수 있는, 다시 말해 극강의 편안함에 어울리는 디자인을 뜻한다. 그래서 자연 그대로의 가

치를 살린 좋은 소재를 엄선해 부담스럽지 않은, 단순미와 세련미를 갖춘 절제된 미니멀리즘 디자인을 바탕으로 한 '럭셔리-프리미엄-컨템포러리'로 구성된 다채로운 제품 컬렉션을 내놓고 있다. 먼저 최상위에 자리한 '뷰티레스트 블랙(Beautyrest Black)'은 디자인 자체에도 품격이 묻어나는 '럭셔리 컬렉션'으로 소재의 미학에도 세심하게 신경 쓴 흔적이 여실히 보인다. 프리미엄 매트리스 소재와 하이카본 스틸 재질의 어드밴스드-포켓스프링을 활용해 차원이 다른 고품격의 수면 경험을 제공한다. 또 많은 이들에게 익숙하게 여겨질 '뷰티레스트(Beautyrest)'는 시몬스의 프리미엄 컬렉션으로 1925년 포켓스프링 제조 기술 세계 특허를 취득하고 전 세계 수면의 기준을 정립한 바 있다. 2015년 새롭게 선보인 야심작 'N32 Collection'은 현대적인 감각으로 표현한 야심작으로 '컨템포러리 컬렉션'에 속한다. 삶에 즐거운 활력을 줄 수 있는 '수면 공학'에 관심이 있다면 찬란한 전통으로 바탕으로 기술과 디자인을 거듭 진화시켜온 시몬스의 혁신에 눈길을 즐겁히 하지 않을까.

1 뷰티레스트 컬렉션 플로럴(Beautyrest Floral), 2 절제된 세련미를 담은 디자인을 추구하는 시몬스의 신제품 '벨로(Bello)'. 3 0%의 탄소 배출량으로 개별 포장 공정을 거치는 포켓스프링, 4 120kg의 82형 롤러로 10만 번 이상 시행되는 내구성 테스트, 5 브랜드 고유의 품질 철학과 장인 정신을 보여주는 라벨 자수 기계, 6 2015년 새롭게 선보인 매트리스 'N32 Collection'.



Scent of a man

외출 준비를 마쳤다면 마무리는 단연 향수다. 뿌리는 순간 사위한 듯 상쾌함을 선사하고, 청량한 각테일 한잔을 마신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켜줄 아쿠아 향수의 시원한 상상.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왼쪽 아래부터 시계 방향으로) ck 원 샘머오 두왓렛 한눈에 봐도 햇빛이 내리쬐는 바다가 떠오르는 향수. 라임, 수박, 오이, 생강, 파슬리 향분이 가벼운 시트러스 향을 완성한다. 지금 당장 해변으로 떠날 수는 없지만 잠시나마 여유로운 휴식을 만끽하고 싶은 이들에게 바다의 장쾌함을 느끼게 해줄 것. 100ml 6290원. 문의 02-6924-672 **에르메네즈 제나 Z 제나 오드 두왓렛 내추럴 스프레이** Z 제나의 패션 컬렉션에서 모티브를 얻은 파퓰. 특 쓰는 화이트 페퍼가 알싸하면서도 시원한 향을 선사한다. 이외에도 캐시미어 우드 향분이 들어 있어 무게감이 살짝 느껴지는 마지막 향기가 특징이다. 무엇보다 지속력이 깊어 외출 전 옷에 뿌려두면 하루 종일 기분 좋은 향기에 취할 수 있다. 100ml 10250원. 문의 02-3440-2774 **다비도프 쿨 워터 맨 샘머오 피스** 다비도프 쿨 워터의 리미티드 버전. 이름 그대로 바다를 모티브로 한 청량한 향기가 인상적이다. 상큼한 만다린, 민트, 샌달우드 향분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부드러운 시원한 느낌을 준다. 절리지 않는 아쿠아 향수를 선호하는 이들에게 추천한다. 125ml 6190원. 문의 02-3443-

5050 **부쉐론 리드포 포 맨** 부쉐론의 아이코닉한 리드포 반지를 모티브로 한 아로마틱 향수. 상큼하고 가벼운 베르가모트와 은은하게 피자는 바닐라향의 일의 첫 향이 매력적이다. 미들 노트에서는 라벤더의 부드러운 향기가 전해지며, 안정감을 주는 파슬리 향이 고급스럽게 마무리해준다. 100ml 1210원. 문의 080-800-8809 **입생로랑 콜드 리드포 오드 두왓렛** 특 쓰는 핑크 페퍼 향분이 강렬하면서도 시원한 향기를 풍기는 콜드 리드포. 활동적이고 스포티브 스타일을 추구하는 남성에게 어울리는 향수로, 목직향 욕망형 보틀 캡과 보틀 안 불루 컬러의 스트로에서 남성기가 느껴진다. 60ml 9100원. 문의 080-347-0089 **엘랑 옴의 에티알 코롬** 에티알 남자는 시트러스와 그레이프 프루트, 오렌지, 베르가모트와 조화로운 이쁜 경쾌한 향이 매력적이다. 특히 홈 내음을 연상시키는 인디언 베베르의 향을 더욱 신선하게 만들어주는 사시지 효과를 낸다. 향수를 뿌리고 몇 시간 지난 뒤 남은 잔향과 정서각화의 군더더기 없는 보틀 디자인까지 완벽하다. 50ml 8217원. 문의 080-343-9500 **에디터 배미진, 김지혜**

editor's Pick

싱그럽고 달콤한 과일 향부터 매혹적인 여인을 닮은 플로럴 향까지. <스타일 조선일보> 기자들이 선정한 9월의 향기는 추억을 떠올리게 하고, 마음까지 치유한다.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다을 아드트 립스틱** 다을의 시그니처 립스틱인 아드트 트의 새로운 버전. 천연 마늘 오일 성분이 톱 톱트와 같은 역할을 해서 사용해보면 확실한 반박임이 더 선명해진 것을 느낄 수 있다. 에디터는 베이지 핑크 컬러인 원 다을을 사용했는데 건조한 입술로 피곤해 보이는 얼굴을 환하게 만들어주는 점이 마음에 들었다. 3.5g 4210원. 문의 080-342-9500 *by 에디터 김지혜*

더 히스토리 오브 후비집 지온 크림 피부 스스로의 힘을 키워주는 자생 크림으로 안티에이징에 특화된 이중 보습을 담았다. 동충하초와 녹용, 플라넬 등 주름과 피부 결 개선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는 귀한 성분을 함유했다. 화려한 패키지에 특히 추천한다. 60ml 2310원. 문의 080-023-7007 *by 에디터 배미진*

프래쉬 오벌 슝 누군가가 정성스레 포장했을 것 같은 이 바르는 1991년 바스 뉴욕에서 처음 판매했을 때 이름 만에 품질진, 프래쉬의 시그니처 제품이다. 중이에 싸여 있던 발효가 좋아 인테리아 소풍 겸 방한제로도 활용될 수 있을 만큼 매력적인 향기가 특징. 시야부터 성분을 함유해 일반 비누보다 거품이 많고 끈고하다. 250g 2210원. 문의 080-822-9500 *by 에디터 권유진*

클레르노 보베 크림드 프로텍티옹 UV SPF 50+/PA+++ 끈적이지 않으면서도 자외선이 피부에 닿지 않게, 피부에 가벼운 필름을 입혀주는 BB크림 역할까지 한다. 잘-에센스라는 독특한 수분 베이스가 피부결을 부드럽게 마무리하고 백탁 현상이 없다. 50ml 1810원. 문의 080-564-7700 *by 에디터 배미진*

나스 아에시나스 마스크라 마스크라를 고를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워터프루프 기능이다. 아무리 완벽한 클링을 자랑해도 눈 밑에 까맣게 물들면 안 되고, 마스크라를 하지 않은 것보다 못하기 때문. 이 제품은 상세한 클링으로 또렷한 눈매를 완성하며, 스킨케어의 기능을 갖춰 번지지 않는 완벽한 마무리가 만족스럽다. 8ml 3280원. 문의 02-6905-3747 *by 에디터 김지혜*

겐조 플라워워터엔드 엘비사르 플라워워터엔드 탄생 15주년을 기념한 향수. 보틀에서부터 15년의 오라와 골드빛으로 물든 포피가 매력적인 엘비사르는 더욱 풍부한 플로럴 향기로 태어났다. 라즈베리와 불가리아 로즈 향분의 달콤하면서도 관능적인 향이 스킨에서 여인으로 거듭난 여성을 보는 듯하다. 니트에 미리 뿌려 두었다가 외출하면 따뜻한 향기가 포근하게 감싸줄 것. 50ml 12300원. 문의 080-344-9500 *by 에디터 김지혜*

엘비터 뷰티 수프림 더 크림 엘비터의 새로운 안티에이징 크림으로 달콤한 허니 열매를 꾸준히 이어갈 제품. 로열젤리와 니코틴아 뷰티를 듬뿍 담아 비르는 순간 풍기는 은은한 꽃향기가 매력적이다. 끈끈한 텍스처가 피부에 글한 스며들여 탄력을 선사한다. 50ml 72150원. 문의 02-3014-2997 *by 에디터 김지혜*

랩시리즈 BB 틴트드 모이스처라이저 SPF 35 PA+++ 요즘 BB크림이나 쿠션 파운데이션을 쓰는 남자들이 많아졌다. 하지만 얼굴만 동동 뜬 남자를 목격했을 때 느끼는 당혹스러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메이크업 실력을 높이고 싶다면 이 제품을 놓아줄 것. 내추럴한 컬러와 중점 향이 일리는 촉촉한 질감으로 여자 친구도 깜짝 속을 만큼 자연스러운 피부를 연출해준다. 50ml 52170원. 문의 02-3440-2774 *by 에디터 권유진*

샤넬 리프트 리컨투어링 마사지 마스크 평소 시트 제품보다 크림처럼 바르는 마스크팩을 선호하는 편. 이 제품은 수분과 영양을 공급하는 것은 물론 얼굴 라인까지 가꾸어주는 데다 사용법이 간단하다. 수면 팩처럼 얼굴부터 목 라인까지 가볍게 바르는 것만으로 충분하며, 피부에 부드러운 탄력을 선사하는 즉각적인 효과를 느낄 수 있다. 50g 102160원. 문의 080-332-2700 *by 에디터 배미진*

손안락 립 크레용 워터 버전 손안락과 박테온, 패션잡지에서 두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상큼 보중수분이 듀오 아티스트가 만든 제품답게 한 번만 터치해도 뛰어난 발색력을 자랑한다. 흔히 볼 수 없는 고급스러운 면서 트랜디한 컬러감은 두말할 것 없게 되며, 밀착력이 뛰어나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2.7g 11800원. 문의 02-517-3566 *by 에디터 권유진*

SK-II 신폴 파운데이션 신폴에서 메이크업을 받은 듯 화사한 느낌을 주고도 해이름 빌트 타입의 크림 파운데이션. 브러시로 파운데이션의 레이어가 고르게 상도도록 글러준 뒤 얼굴에 바른면 피부를 연출해준다. 피피와 성분과 피부 노화를 예방해주는 마이크로 RNA 성분이 함유되어 메이크업을 하면서 탄력 관리도 할 수 있다. 10.5g 92100원. 문의 080-023-3333 *by 에디터 김지혜*

알리아 파피 디자이너 아예린 알리아의 첫 번째 향수. 구조적인 실루엣과 절대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까다로운 그의 인물을 담은 제품으로 또렷한 플로럴 향기가 매력적이다. 자선스런 기쁨을 원하는 이들에게 추천한다. 100ml 1810원. 문의 02-3447-9630 *by 에디터 배미진*

용기 주르비 누구나 혼자서만 알고 싶은 정보나 제품이 있었는지? 에디터에게는 사실 이 제품이 그렇다. 에센셜 오일과 식물 추출물을 함유한 피부 진정 세제로, 뾰루지가 올라올 조짐을 보일 때 이미 하얀 염증이 생겼을 때, 화상이나 연못에 묻혀 툭툭 두드러지면 흡수시키면 신기하게도 피부 트러블이 빠르게 진정된다. 15ml 62100원. 문의 02-3448-4545 *by 에디터 권유진*



SHOWROOM



에르메스

태그호이어

포멜라르도

위블로

에르메스 (Crafting Time) 전시 에르메스는 장인 정신을 기반으로 탄생한 시계를 소개하는 전시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다년간 쌓아온 에르메스의 공예 기술에 대한 특징을 박스로 구성한 8개의 전용 카바닛에 담았으며, 작가 기욤 엘라르드가 디자인한 박스를 통해 각 시계에 숨겨진 놀라운 기술을 살펴볼 수 있다. 전시는 매종 에르메스 도산파크 3층에 위치한 전시 공간에서 9월 4일부터 17일까지 개최된다. 문의 02-3448-0728

포멜라르도 탕고 컬렉션 포멜라르도는 기존에 선보인 유색 스톤에서 벗어나 우아하면서도 화려함을 담은 까르네 컬렉션을 선보인다. 그중에서도 브라운 다이아몬드 가 메인인 탕고 컬렉션은 원석의 리드미컬한 패배 세팅이 고급스럽다. 까르네 컬렉션은 탕고 컬렉션 이외에도 볼드한 매력기 특징인 아라베스크 컬렉션, 투블라레, 카테네 컬렉션으로 구성된다. 문의 02-3213-2260

태그호이어 아쿠아 레이서 300M 칼리버 16 오 토매틱 크로노그래프 43mm 태그호이어는 새로운 아쿠아 레이서 컬렉션 '아쿠아 레이서 300M 칼리버 16 오 토매틱 크로노그래프 43mm'를 소개했다. 남성적인 디자인의 이 제품은 300m 방수 기능, 단일 방향 회전 bezel을 갖춘 수심 스포츠 전용 워치다. 다이얼에는 깊은 수심에서도 정확한 시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아랑 마커 처리한 인덱스와 핸즈를 부착했고, 실버 다이얼을 새롭게 출시했다. 문의 02-776-9018

위블로 빅뱅 유니코 오프 조이이에 풀 바게트 다이아몬드 위블로는 빅뱅 출시 10주년을 기념해 하이주얼리 워치 '빅뱅 유니코 오프 조이이에 시리즈'를 선보였다. 특히 12억원을 호가하는 이 시리즈 중에서도 빅뱅 유니코 오프 조이이에 풀 바게트 다이아몬드가 아시아 최최저가 유일하게 국내에 오직 1피스 입고됐다. 제품 1피스를 감상하기 위해 약 4백 시자의 R&D와 3백

50시간의 세팅 기간이 필요한 만큼 최고의 세팅 기술을 모두 동원한 제품으로 총 6백53개의 화이트 바게트 다이아몬드로 장식했다. 문의 02-2118-6208

까르띠에 파인 워치메이킹 컬렉션 까르띠에는 1백50년의 오랜 세월 동안 세계 최고 수준의 시계와 보석을 선보이는 주얼리 매종 까르띠에의 파인 워치메이킹 컬렉션을 출시했다. 2015년 고급시계 박람회 SIHH에서 발표한 신제품을 포함해 국내에서 접하기 어려웠던 40여 점의 하이엔드 플래티넘 시계를 9월 한 달 동안 일부 까르띠에 부티크에서 소개한다. 문의 1566-7277

브라이틀링 롯데 호텔 소공 스토어 브라이틀링 이 롯데 호텔 서울 1층에 위치한 소공 스토어를 리뉴얼 오픈했다. 신규 매장은 브랜드의 상징인 옐로 컬러와 날개 달린 B 로고가 시선을 사로잡으며, 매장 곳곳에 걸린 세계적인 팝 아티스트 케빈 T. 맥라의 작품이 브라이틀링의 위트를 보여준다. 파일럿 시계 하우스로서의 역사와 브랜드 정체성을 나타내는 대형 항공기 모형을 비롯했을 뿐만 아니라 소공 스토어를 방문한 고객에게는 제품 이름을 딴 특별한 커피를 제공한다. 문의 02-3789-9017

블랑팡 그랜드 데이트 컴플리케이션 블랑팡은 빌레레 컬렉션 최초로 그랜드 데이트 컴플리케이션을 탑재한 워치를 선보인다. 우아함과 실용성을 고루 갖춘 이 제품은 다이얼 6시 방향에 2개의 날짜창을 배치해 가독성을 극대화했다. 기존 빌레레 컬렉션과도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초코 브라운 엘리게이터 스트랩이 고급스럽다. 문의 02-3467-8426



블랑팡

LIFESTYLE

고디바 쟈 초콜릿 트뤼프 고디바는 기존의 쟈 초콜릿 트뤼프를 새로운 맛과 다양한 패키지로 디자인으로 재출시한다. 한입에 먹기 좋은 사이즈가 특징인 쟈 초콜릿 트뤼프는 컬러풀한 포장지로 개별 포장되어 있어 초콜릿이 손에 묻을 걱정 없이 간편하게 즐길 수 있다. 기존에 선보인 밀크와 다크에 이어 화이트, 미차, 헤이즐넛을 추가해 총 5가지 맛을 선보인다. 문의 080-827-7700

포르세 파나메라 에디션 포르세는 2009년 출시 이후 성공의 한 축을 담당한 파나메라 에디션을 선보인다. 파나메라 에디션, 에디션 디젤, 에디션 4 등 3가지 버전으로 구성된 파나메라 에디션은 업그레이드된 사랑과 고급스러운 스타일이 특징이다. 파나메라 에디션의 모든 헤드레스에는 포르세 엠블럼을 새겼고, 에디션 레터링을 더한 도어 실 플레이트와 전용 플로어 매트를 장착했다. 기본으로 탑재된 PC는 7인치 터치스크린과 함께 오디오,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제공해 편의성을 높였다. 문의 02-2055-9110

캐논 (하늘의 시선, 드론으로 바뀐 세상) 전시 캐논은 사진작가 조성준의 (하늘의 시선, 드론으로 바뀐 세상)전을 개최한다. 이번 사진전은 조성준 작가가 무인 비행기인 드론을 사용해 촬영한 대한민국의 풍경 이미지를 선보이는 자리다. 자상에서는 감상할 수 없는 광활한 영감을 생생하게 시선에 담아내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며, 작품 대부분은 캐논의 EOS 5D Mark 3과 EF 24mm 1/2.8 IS USM으로 촬영했다. 이번 사진전은 캐논 플래시 암구정점에 위치한 캐논 갤러리에서 열리며 오는 10월 11일까지 별도의 관람료 없이 누구나 관람 가능하다. 문의 1568-8133

시몬스 N32 컬렉션 시몬스는 지난 8월 11일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개최한 세계적인 전시 행사 아도르아트 페어(AAF)에서 N32 컬렉션을 선보였다. 장에도 개인의 취향과 스타일 트렌드를 반영할 수 있다는 새로운 시각을 통해 탄생한 시몬스의 N32 컬렉션은 7가지 요일별 디자인과 3가지 강도의 제품으로 고객들에게 자신의 신체에 맞는 매트리스를 직접 고르는 재미를 선사한다. 문의 1899-8182



일모 액세서리 셀렉트 슝 론칭 일모는 유려미편 감성의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대에 구입할 수 있는 액세서리 전문 매장으로 론칭했다. 북유럽 디자인 정신에서 영감을 받은 실루엣이 특징으로, 가방 외에도 슈즈, 지갑, 타이 등 다양한 액세서리를 한곳에서 둘러볼 수 있다. 문의 1599-0007

랄프 로렌 첫 단품 플로 스토어 랄프 로렌이 신시던 가로수길에 세계에서 여덟 번째로 플로 프라스 탠덤 스토어를 오픈했다. 1층과 2층에는 트렌디한 스타일을 강조한 남성 컬렉션을, 3층에서는 세련된 블랙 드레스는 물론 다양한 데님 컬렉션으로 구성된 여성 컬렉션을 만날 수 있다. 특히 4층에 위치한 키즈 웨어는 신생아부터 스무 살까지 넓은 연령대를 아우르는 제품을 선보인다. 문의 02-6004-0220

DVF 빌레리 드레스 DVF는 빌레리 드레스를 출시한다. DVF의 아이코닉한 펄 스타일 드레스로, 블루, 핑크, 블랙 컬러가 믹스된 플로럴 프린트가 우아한 빌레리나를 연상케 한다. 플로럴 블랙과 플로럴 블루 2가지 컬러로 출시되며 다가오는 10월, DVF 매장에서 만날 수 있다. 문의 02-3444-7114

이세이 미야케 코스튬 코트 이세이 미야케는 브랜드 시그니처 기술인 스킴 스트레치 기법을 사용해 교차되는 플리츠가 특징인 코스튬 코트를 제안한다. 기존 스트레치 테크닉에서 업그레이드되어 각기 다른 사이즈의 주름이 눈에 띄며, 블랙 컬러로 출시할 예정이다. 문의 070-7130-7716

페라가모 #Ferragamoscape 캠페인 페라가모는 배우 이사진과 페라카모 이스케이프 캠페인을 진행한다. 페라카모 이스케이프는 페라가모의 주문 제작 드라이빙 슈즈 론칭을 기념하기 위한 디지털 캠페인으로,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과 스타일링을 동시에 거머쥔 남성들의 여행 모습을 공개하는 프로젝트다. 한국 대표로 참여한 이사진의 스타일링 시한 모습은 웹사이트(driver.ferragamo.com)를 통해 공개된다. 문의 02-3430-7854

토즈 2015 F/W 여성 광고 캠페인 토즈가 2015 F/W 여성 광고 캠페인을 공개했다. 가족을 사랑한 스페셜 스타일링과 그래픽적인 디테일을 통해 모던하고 세련된 토즈의 여성상을 표현했다. 메인 테마는 대도시에서 즐기는 스카이는 이미의 코스모폴리탄 스킴으로, 세련된 스포티 스타일을 보여준다. 토즈의 아이코닉한 케이프 백과 차음으로 선보이는 웨이브 백은 이번 시즌 메인 아이템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문의 02-3438-6008



에르메네집도 제너 구찌의 컬렉션은 브라운 슈트를 제안한다. 제너 구찌의 컬렉션에서 매 시즌 선보인 브라운 슈트는 한 벌로만 입을 수 있는 알찬 슈트와는 달리, 상황에 따라 재킷과 팬츠를 따로 또는 같이 입을 수 있어 자유로운 믹스 매치가 가능하다. 특히 이번 시즌 울 모헤어와 캐시미어 혼방 소재를 사용해 은은한 광택과 부드러운 질감이 돋보인다. 문의 02-518-0285

에르메네집도 제너 구찌의 컬렉션 브라운 슈트 에르메네집도 제너 구찌의 컬렉션은 브라운 슈트를 제안한다. 제너 구찌의 컬렉션에서 매 시즌 선보인 브라운 슈트는 한 벌로만 입을 수 있는 알찬 슈트와는 달리, 상황에 따라 재킷과 팬츠를 따로 또는 같이 입을 수 있어 자유로운 믹스 매치가 가능하다. 특히 이번 시즌 울 모헤어와 캐시미어 혼방 소재를 사용해 은은한 광택과 부드러운 질감이 돋보인다. 문의 02-310-1685

딕케 뉴 레슬리 백 딕케는 퓨처리틱 빈티지(futuristic vintage)라는 독특한 콘셉트를 앞세운 핸드백&액세서리 브랜드로 이번 시즌 뉴 레슬리 백을 선보인다. 뉴 레슬리 백은 기존 딕케의 시그니처 라인인 레슬리 2015 F/W 버전으로 딕케의 뮤즈 배우 한 예슬의 이미지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한 제품이다. 체인과 슬더 스트랩을 사용해 다양한 연출이 가능한 뉴 레슬리 백은 기존 레슬리 백의 잠금 디테일을 업그레이드해 안정감과 제품의 완성도를 높였다. 소가죽과 코팅 가죽 2가지 소재를 믹스한 독특한 질감이 특징으로 사이즈는 스몰과 미디엄으로 구성되었다. 문의 02-519-8123

BEAUTY

샤넬 인피니망 샤넬 샤넬은 매끈한 블랙 캐시미어 패치에 샤넬의 상징적인 CC 로고를 새긴 페이스 파우더 '인피니망 샤넬'을 선보인다. 인피니망 샤넬은 브러시로 가볍게 한번 쓸어주면 피부 톤을 고르고 화사하게 완성해준다. 빛을 머금고 광채 피부를 연출하고 싶은 날에는 얼굴 전체에 펴 바르거나 광채와 이마에 함께 바르면 하이라이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문의 080-332-2700

디올 디올 어딕트 디올은 새로운 버전의 디올 어딕트 립스틱을 선보인다. 기존보다 선명한 반짝임이 눈에 띄는 제품으로, 립스틱 중앙의 CD 모노그램은 3가지 천연 미네랄 오일 성분으로 이루어져 부드러운 발림성을 자랑한다. 여기에 진주빛 광택이 나는 섬세한 펄 피그먼트와 글리터를 함유해 하루 종일 지속되는 반짝임을 선사한다. 문의 080-342-9500

조르지오 아르마니 루미나스 실크 컴팩트 조르지오 아르마니는 텍스처가 가볍고 부드러운 루미나스 실크 컴팩트를 제안한다. 루미나스 실크 파운데이션 제품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한 것으로, 비는 즉시 피부에 빠르게 밀착되며 은은한 빛을 선사한다. 모공과 피부 표면을 자연스럽게 매끄럽게 연출해주는 루미나스 실크 컴팩트는 9월부터 판매하기 시작했다. 문의 080-022-3332

프레쉬 슈가 누드 립 트리트먼트 SPF 15 프레쉬는 누드 컬러의 새로운 립 트리트 슈가 누드 립 트리트먼트를 제안한다. 이 제품은 보습 기능을 지닌 설팅과 입술을 매끄럽고 부드럽게 가

꾸주는 포도씨 오일, 건조함을 막아주는 카나루아 왁스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자연스러운 컬러를 표현하며 입술을 촉촉하게 만들어준다. 문의 080-822-9500

SK-II 샬롬 파운데이션 SK-II는 샬롬에서 메이크업 받은 듯 윤기 있고 매끈한 피부로 연출해주는 '샬롬 파운데이션'을 출시한다. 3개의 레이어로 구성된 샬롬 파운데이션은 프라이머나 메이크업 베이스같이 복잡한 단계를 거치지 않고도 광채, 윤기, 커버력을 모두 만족시킨다. 특히 화이트 레이어는 RNA 콤플렉스 성분을 함유해 메이크업과 동시에 탄력 관리를 할 수 있다. 세트로 구성된 미탄스 퍼펙팅 브러시는 메이크업 스킴이 더 가벼워지기 힘든 모공 부위까지 뽀얗게 밀착시켜준다. 문의 080-023-3333

겔랑 몽 익스클루시브 오 드 파퓌 겔랑에서 익스클루시브 라인의 새로운 향수, 몽 익스클루시브 오 드 파퓌를 출시한다. 따뜻하고 여성스러운 토피 향과 강인하면서도 부드러운 샌들우드 향이 조화를 이뤄 세련된 향기를 완성한다. 거기에 빌레리나의 리본에서 영감을 받은 보틀이 여성스러운 향을 부각한다. 문의 080-343-9500

에스티 로더 뉴 디멘션 트랜스포머티브 컬렉션 에스티 로더는 어느 각도에서든 자신 있는 얼굴을 선사하는 뉴 디멘션 트랜스포머티브 컬렉션을 선보인다. 필요한 부위를 채워주고 피부의 지지 구조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뉴 디멘션 트랜스포머티브 컬렉션은 농축된 포폴리아 펩티드를 매끈하게 만들어주는 뉴 디멘션 쉐이프+필 엑스퍼트 세럼과 눈가·팔자 주름 등 탄력이 필요한 주요 부위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엑스퍼트 리퀴드 테이프, 뉴트림 컬러로 얼굴에 깊이감을 선사하는 페이스와 아이 컨투어링 키트로 구성된다. 문의 02-3440-2772



JEWEL



FASHION